28宿에 대한 考察

- ≪內經≫과 ≪類經≫을 中心으로 -

박영환·박경남·맹웅재*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28 Lunar Mansions(Hsiu:宿)

Park, Yung Hwan, Park Kyoung Nam, Maeng Woong 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at studying how 'the 28 Lunar Mansions' was applied to the Oriental medicine(韓醫學) and was set up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ies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especially examines how 'the 28 Lunar Mansions' has influenced Oriental medicine focusing on the exploration of "The Huang Di Nei Jing, the Inner Classic of the Yellow Emperor ≪黃帝內經≫" and "Lei Jing≪類經≫". Through that examination, there came some findings as follow.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8 Lunar Mansions, Huang Di Nei Jing, Lei 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Ⅰ.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天文學은 古代人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人身은 小宇宙"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理論은 ≪黃帝內經≫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黃帝內經≫이 저술되기 이전 이미 오랜 세월동안 각 學派에서 宇宙의 기원과 생명현상을 연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1]. 즉 天文學과 기타 학설들이 계속해서 醫學의 영역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이론적, 철학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하나의 통합된 理論으로 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古人들은 28宿와 日月星辰의 관측을 통해 1年이라는 시간[2]과 4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醫學에서는 經脈學說이 완성되었고, 曆法[3]이 점점 세밀하게 발달되면서 五運六氣學이 도입되어 ≪黃帝內經≫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한의학의 일관된 기본사상으로, ≪東醫寶鑑≫이나 현대에 발간된 韓醫學書에 이르기까지 모든 醫家에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인식론이다.

이러한 醫學의 宇宙觀에는 계절의 변화와 天體의 구조까지 포함하였다. 그 중 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黃帝內經≫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졌는데, 특히 〈五運行大論 第六十七〉과 〈衛氣行 第七十六〉에서는 天文學의 기본이 되는 28宿를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에 著者는 28宿가 ≪黃帝內經≫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기에 이에 본 논문을

* 교신저자 : 맹웅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63-850-6838

1) 맹웅재, 박경남 :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1, p.4.

2) 선사시대에는 1달을 1年으로 보기도 하고 5달을 1年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10진법이 발달된 이후로는 10달을 1年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집트에 와서야 12달을 1年으로 보았는데 노몬(gnomom)이라는 막대기를 땅에 꼽고 해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의 사이(冬至와 夏至)를 1年으로 정했다. 동양에서는 이를 土圭라고 하였다. 저자의 계산법에 따르면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는 기록은 현재 나이로 12달을 1年으로 계산했을 때 76.8세를 산 것이다. - 이정모 : 달력과 권력, 부키, 2002, pp.44-45.

3) 실제로 사용되는 ≪夏小正≫이란 農事曆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BC 5세기경이며 이를 최초의 曆書라고 보고 있다. 이후 BC 370年부터 1851年 사이 中國에서는 102개나 되는 曆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었다.-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97.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우선 28宿가 한의학의 형성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黃帝內經≫과 ≪黃帝內經≫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類經≫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醫書에 있는 28宿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天文學의 지식이 필요했다. 따라서 28宿를 構造와 曆數로 나누어 考察하였다.

28宿의 構造에서는 28宿의 형성 배경, 方位가 설정된 원리, 28宿의 철학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마지막에 BSC별을 사용하여 同定된 28宿의 별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28宿의 曆數에서는 28宿의 시간적 의미를 다루었다. 즉 28宿와 12次, 12宮, 24節氣와의 관계를 통해서 28宿가 24節氣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윷놀이와 28宿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黃帝內經≫에 인용된 28宿를 분석하였다. 또 ≪類經≫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運氣學說과 經脈學說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우선 ≪黃帝內經≫에 인용된 28宿의 구조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 과거 春分點과 秋分點의 위치를 통해 ≪黃帝內經≫에 인용된 28宿의 年代를 추적해 보았다. 箕門穴과 28宿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求故齋道恕의 學說을 통해 天體와 經脈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Ⅱ. 본론

1. 28宿의 構造와 曆數

1) 28宿의 構造

⑴ 28宿의 形成

28宿는 165개의 별로 이루어졌으며 하늘의 周天度數(365와 ¼도)를 영역별로 맡고 있다[4]. 예로부터 28宿를 통하여 해와 달과 五星의 위치를 알아내고[5], 28宿를 통하여 계절을 알아내고[6], 28宿를 통하여 三垣을 구분하고[7], 28宿를 통하여 五天과 五運을 정하고, 28宿를 통하여 24節氣를 정하며[8], 28宿를 통하여 12次와 12分野를 정하였다. 결국 天文의 모든 현상은 모두 28宿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漢書·藝文志·數術略≫에서도 "天文이라는 것은 28宿의 순서를 정하고 오행성과 해와 달의 운행을 헤아리는 것으로써, 吉凶之象을 기록하여 聖王이 정치를 했다." 라고 定義를 내렸다[9].

天文의 관찰은 曆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다. 해와 달이 하루에 몇 도를 움직이는지 알아야 했으며 매일 달이 머무는 별의 위치를 알아야 했고 매달 해가 머무는 별의 위치를 계산해내어야 했다. 또 매일 밤 별자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도 관찰해야 했다. 또 五星의 위치를 관찰해야 했다. 이러한 것을 모두 관찰한 다음에야 曆法을 만들 수 있는데[10] 28宿의 위치는 오랜 관찰을 통해 달의 주기가 29.5일이란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정해졌다고 한다[11]. 그래서 古代에는 누구나 天文을 읽을 수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을 알았다고 전해진다[12]. 세월이 지나면서 28宿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24節氣[13]가 만들어지면서 일반백성들은 좀 더 정확한 날짜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일반 대중이 정확한 날짜를 알기에는 다시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日蝕기록을 살펴보면 각 나라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天文을 정확히 實測해 왔음을 할 수 있다[14]. 朝鮮 世宗때 만들어진 당시 세계 최고 曆法인 ≪七政算≫은 국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은 만들어

---

4) 김수길, 윤상철 공역 : 天文類抄, 대유학당, 1998, p.17.

5) 五星의 運行은 占星術에 특히 많이 이용되었다. -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p.95-108.

6) 대지에 봄내음이 물씬 풍겨날 무렵 겨울의 1등성들은 봄별의 선구자인 사자의 포효에 놀라 서쪽하늘 저 멀리로 달아나버리고 하늘엔 새로운 모습의 별들만이 봄의 신선함을 축복하고 있다. 이때 동남쪽하늘 지평선 위로 밝은 1등성 하나가 낮게 떠서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별이 바로 처녀자리의 으뜸별 스피카(Spica : 亢宿)이다. - 이태형 :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1989, p.114.

7) 28宿는 天球의 赤道에 位置하는데, 三垣은 모두 赤道의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구분이 간다. - 김수길, 윤상철 공역 : 天文類抄, 대유학당, 1998, p.9.

8) 24節氣는 해가 지나는 길인 黃道를 시간적으로 24등분한 것이다. 해가 어떤 28宿와 만나는가를 기준으로 24節氣를 나눈다. - 上揭書 : pp.14-15.

9) 天文者 序二十八宿 步五星日月 以紀吉凶之象 聖王所以參政也. - 顧實 : 漢書藝文志講疏, 商務印書館, 1927, p.220.

10)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122.

11) 달의 위상 변화를 주기로 한 삭망월은 29½일이고, 항성을 기준으로 달이 같은 장소로 되돌아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인 항성월은 27⅓일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주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값을 평균한 28일이 보다 편리했을 것이다. - 上揭書 : p.121.

12) 당시 사람들은 衣食住와 交通은 모두 별의 출몰을 보고 결정해야 했으므로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지식은 매우 보편적이었다. - 任應秋 : 運氣學說 五運六氣, 그 이론과 실제, 東文選, 1992, pp.27-28.

13) 24節氣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은 ≪淮南子·天文訓≫(BC 2세기)에서 나타난다.

14) 박창범 :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pp.55-56.

지지 않았다[15]. 적어도 1896年 그레고리 역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농사나 계절의 변화를 24節氣를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였다고 한다[16]. 하물며 정확한 曆法이 없던 古代에는 모든 것을 28宿를 중심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宿의 기록은 최근 中國 河南省 安陽에서 발견된 甲骨文字다. 여기에는 BC 1500年의 商代 武丁의 時代(BC 1339年 - BC 1281年)에 그의 치세를 새긴 별들의 기록이 있다.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별은 鳥星, 火星[17], 房星, 心星인데, 이들 별은 천구의 적도를 따라 하늘을 네 부분(동쪽은 靑龍, 서쪽은 白虎, 남쪽은 朱雀, 북쪽은 玄武)으로 나눈 것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것이다[18]. 또 ≪書經·虞書·堯典≫에 "鳥[19], 火, 虛, 昴란 별자리의 南中에 의하여 春夏秋冬을 바로잡았다." 는 기록이 있는데[20], 근래 발견된 甲骨文字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意味있는 기록으로 보인다. 또한 ≪書經·周書·洪範≫에 箕宿에 해당하는 好風과 畢宿에 해당하는 好雨라는 단어가 등장하며[21], 또 夏의 曆法으로 전해지는 ≪夏小正≫에 房宿에 해당하는 大火, 女宿에 해당하는 織女와 昴宿, 參宿가 나타난다[22]. ≪詩經≫에 이르러서는 실제 생활에서 28宿가 자유롭게 사용되던 모습이 여러 편의 詩에 나타난다. ≪詩經≫에는 房宿에 해당하는 火, 壁宿에 해당하는 定, 箕宿, 牽牛宿, 織女宿, 昴宿, 畢宿, 參宿의 8宿가 나타나는데 이미 이 時代(BC 1070年 - BC 770年)에는 상당한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顧炎武(1613年-1682年)는 ≪日知錄·天文≫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夏, 商, 周의 三代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天文을 알고 있었다. "7월에는 火星이 서쪽으로 이동한다[23]"는 것은 농부의 말이고, "三星이 집을 비추고 있다[24]"는 것은 부녀자의 말이며, "달이 畢星에 가까워진다[25]"는 것은 戍卒이 지은 시이고, "龍尾伏辰[26]"은 아동들의 童謠이다. 후세의 문인사학들은 이것들을 질문하면 어리둥절해한다. 만약 曆法이라면 古人이 近代의 세밀함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27].

또 ≪左傳·昭公元年≫에는 參宿와 心宿가 東西로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出沒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參辰", "參商"이라고 하였는데, 훗날 친한 벗이 오랫동안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형제가 화목치 못한 것을 말하는 말이 되었다[28]. 또 ≪爾雅·釋天≫에는 17宿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문헌상으로 28宿의 명칭이 완전하게 나오는 것은 훗날 ≪呂氏春秋·有始覽第一≫에 보인다. 대체로 BC 14세기부터 BC 5-4세기까지는 宿의 발전상황을 추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29]. 또 ≪書經·虞書·堯典≫에 堯임금이

15) 저자에 따르면 조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역법 계산이 어려웠다고 한다. - 이정모 : 달력과 권력, 부키, 2002, p.188.

16) (조선) 개국 504年(1895年) 11월 17일을 505年(1896年) 1월 1일로 한다. - 박창범 :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p.166.

17) 鳥星은 물뱀자리$_{\alpha}$, 火星은 전갈자리 안테라스성을 말한다. -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122.

18) 上揭書 : pp.122-123.

19) 少皞 金天(제위 7年·기원전 2474-2464)는 임금이 되자 '새로써 관직의 이름'을 정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鳥라고 하여 여러 새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이때 鳥라는 말은 임금을 의미했다. ≪書經・虞書・堯典≫에 따르면 '鳥'는 朱雀인 井, 鬼, 柳, 星, 長, 翼, 軫의 南方七宿를 총칭하는 별자리로 표현되어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 김대성 :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2002, pp.107-114.

20)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星鳥,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孳尾. 申命羲叔, 宅南郊, 平秩南訛, 敬致, 日永星火, 以正仲夏, 厥民因, 鳥獸希革. 分命和仲, 宅西, 曰昧谷, 寅餞納日, 平秩西成, 宵中星虛,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毛毨. 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星昴, 以正仲冬, 厥民隩, 鳥獸氄毛. 帝曰咨汝羲暨和, 朞, 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 - 蔡沈 : 書經集註 卷一, 刊寫者未詳, 1866, pp.70-86.

21) 蔡沈 : 書經集註 卷四, 刊寫者未詳, 1866, p.64.

22) 楊家駱 : 大載禮記解註 夏小正經傳集解, 世界書局, 1974, pp.2-17.

23) "七月流火, 九月授衣"는 ≪詩傳·豳風·七月≫편에 있다. 火는 心星이다. 7월에 火星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점점 추워져서 9월이 되면 옷을 더 입어야 한다는 뜻. - 胡廣 : 詩傳大全 卷八, 匯東書館, 1918, p.137.

24) "綢繆束楚, 三星在戶"는 ≪詩傳·唐風·綢繆≫편에 있다. 三星은 參星이다. "가시나무가지로 단단히 동여매니 三星이 집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5월 말, 6월 중을 말하는 것이다. - - 胡廣 : 詩傳大全 卷六, 匯東書館, 1918, p.17.

25) "月離於畢, 俾滂沱矣"는 ≪詩傳·小雅·都人士之什·漸漸之石≫편에 있다. 달이 畢宿에 걸려있으니 큰비가 멈추지 않고 내린다는 뜻이다. - 胡廣 : 詩傳大全 卷十五, 匯東書館, 1918, p.143.

26) 童謠云, 丙之晨, 龍尾伏辰; 均服振振, 取虢之旂. 鶉之賁賁, 天策焞焞, 火中成軍, 虢公其奔. -杜預 : 春秋左傳 卷九, 刊寫者未詳, 肅宗年間(1676-1720), p.89.

27) 三代以上人 人皆知天文 七月流火 農夫之辭也. 三星在天 婦人之語也. 月離于畢 戍卒之作也 龍尾伏晨 兒童之謠也. 後世文人學士有間之 而茫然不知者矣. 若曆法則 古人不及近代之密. - 黃汝成 : 續修 四庫全書 1144, 上海古籍出版社, 2000, p480.

28) 昔高辛氏有二子, 伯曰閼伯, 季曰實沈, 居於曠林, 不相能也. 日尋干戈, 以相征討, 后帝不臧, 遷閼伯於商丘, 主辰, 商人是因, 故辰爲商星, 遷實沈於大夏, 主參, 唐人是因 … (中略) … 故曰爲晋星. - 杜預 : 春秋左傳 卷三十四, 刊寫者未詳, 肅宗年間(1676-1720), p.126.

29)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125

羲와 和에게 命令을 내려 曆法을 만들라고 한 내용을 보더라도, 28宿의 처음 출발은 적어도 BC 2300年[30]경부터 출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現代天文科學으로 考察해보면 현재 하늘의 28宿는 天球의 赤道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春分點의 歲次를 고려하여 BC 2400年전의 天球의 赤道를 그리면 많은 宿들이 天球의 赤道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1)[31]. 이것은 28宿가 BC 2400年경 실제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하면서 정해진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32].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최근 발표되었는데 바로 1987年 발간된 駱賓基(1917-1994)의 ≪金文新攷≫이다. ≪金文新攷≫는 BC 4500年경부터 제작된 靑銅器[33]에 나타난 金文을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天文의 始作을 BC 2517年 神農과 黃帝때로 보고 있다[34]. 또 駱賓基에 따르면 古代의 임금은 각자 자신을 상징하는 별을 가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禹임금[35]의 경우 당시 歲序의 으뜸자리 별은 春分에 뜨는 별인 昴宿[36]로 정했다고 하는데 昴宿는 舜임금[37]의 별이므로 이를 옆으로 밀어나고 禹임금의 이름인 畢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또 東方 7宿인 角宿 또한 神農[38]의 별 羊角이었으나 禹의 아버지 帝嚳高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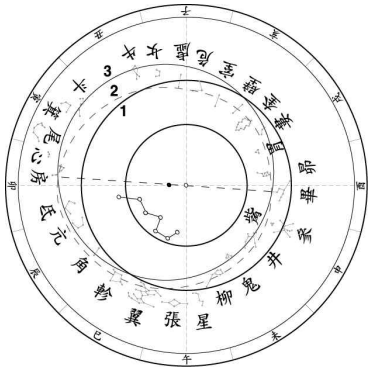


그림1. BC 2400年경의 28宿와 天球赤道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냄.(註釋 31 참조).

[39]의 牛角로 바꾸면서 角宿를 歲首로 삼아버렸다고 한다[40]. 이것은 上古時代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帝王의 權力盛衰에 따라 별자리이름이 수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41].

또, 최근에 가장 오래된 천문기록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고인돌에 새겨진 별 자리이다. 최근 북한에서 발견된 평남 증산군 용덕리 고인돌(BC 30세기경), 평남 평원군 원화리 고인돌(BC 25세기경), 함남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BC 15세기경), 평남 상원군 용곡리 고인돌군(BC 30 - BC 1세기경)과 남한의 청원 아득이 고인돌(BC 500年경)[42] 등이 있다. 본래 고인돌의 새겨진 홈은 민간신앙의 '性穴'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고인돌은 古朝鮮시대에 새겨진 北斗七星과 같은 대표적인 별자리임이 밝혀졌다[43].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天文觀測의 기록은 적어도 BC 3000年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28宿는 BC 2500年경 三皇五帝시절에 거의 완성되어 전해 내려왔으며, 적어도 詩經이 저작될 시기에는 누구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융성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8宿의 단점은 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구름이 없는 밤에만 관찰이 가능하며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다[44]. 이후 좀

30) 三國遺事에 堯임금 戊辰年(BC 2333年)에 檀君께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31) 이 그림에서 1번 원은 500年 경의 天球赤道이고 2번 원은 BC 2400年 경의 天球赤道이다. 3번 원은 黃道이다. 가운데 점선상의 검은 점은 BC 2400年 경의 天球의 北極이다. 많은 수의 28宿가 과거의 赤道上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支로 표시한 방위는 ≪天象列次分野地圖≫에 따른 것인데 春分点, 秋分點, 冬至, 夏至의 方位와는 연관성이 없고, 오로지 BC 2400年 경 당시의 28宿의 方位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南方七宿에 午를 北方七宿에 子를 西方七宿에 酉를 東方七宿에 卯를 배치하였다.

32) 니덤은 세차운동에 의해 밝은 牽牛(알타이르)가 희미한 女宿(물병자리 ε)에게 자리를 내주고 織女(베가)가 별빛이 약한 牛宿(염소자리 β)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생각했다. -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130.

33) 金文은 역사시대 이후 나무나 동물의 껍질, 돌 금속에 새겨진 글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金文新攷≫에서는 4500年경 중국의 三皇五帝時代에 사용되었던 靑銅으로 만든 각종 農器具와 兵仗器, 貨幣, 祭器에 새겨진 글자를 총칭해서 말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靑銅器는 약 1만여 개나 되며 이중 해석이 가능한 글자는 1천여 자 미만이다. - 김대성 :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2002, pp.27-29.

34) 이 책에서 著者는 夏, 殷, 商代가 바로 古朝鮮의 歷史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三皇五帝時代의 최초의 帝王인 神農이 東夷族의 首長임을 밝히고 있다. - 上揭書 : pp.30-31.

35) BC 2311年 帝位 8年. - 上揭書 : p.42.

36) Starry Night Pro 4.0.4.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검증한 결과 그레고리역 BC 2311年 4월 11일 아침 7시경 春分日 동쪽 하늘에 太陽이 정확히 昴宿의 위치에서 떠오른다.

37) BC 2320年 帝位 9年. - 김대성 :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2002, p.42.

38) BC 2517年 帝位 43年. - 上揭書 : p.42.

39) BC 2420年 帝位 55年. - 上揭書 : p.42.

40) 上揭書 : p.269.

41) 古代 天文學의 주된 관심은 오로지 天體觀測과 曆法의 改正에 있었다. - 李成奎 : 古代中國의 占星學, journal of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Vol. 6, no. 1, 1984, p.18.

42) 박창범 : 청원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제23권 제1호, 2001, pp.15-16.

43) 박창범 :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pp.99-104.

44) ≪呂氏春秋≫를 예를 들면 孟春之月을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실제 하늘을 관찰하려면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觀象授時'라고 한다.

더 세밀한 해의 운행이 계산되고 1年의 길이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내면서[45] 이를 바탕으로 24節氣가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다[46].

典籍	堯典	洪範	夏小正	詩經	國語	爾雅	呂氏春秋	淮南子	史記
年代	BC 2500	?	?	BC 1200	BC 551	BC 500	BC 240	BC 179	BC 91
角					辰角	角	角	角	角
亢					天根·本	亢	亢	亢	亢
氐						氐	氐	氐	氐
房	火		大火	火		房	房	房	房
心					農祥·天駟	心	心	心	心
尾					龍·火	尾	尾	尾	尾
箕		好風		箕		箕	箕	箕	箕
斗						斗	斗	斗	南斗
牛				牽牛		牽牛	牽牛	牽牛	牽牛
女			織女	織女			婺女	須女	婺女
虛	虛					虛	虛	虛	虛
危							危	危	危
室						營室	營室	營室	室
壁				定	天廟·營室	東壁	東壁	東壁	壁
奎						奎	奎	奎	奎
婁						婁	婁	婁	婁
胃							胃	胃	胃
昴	昴		昴	昴		昴	昴	昴	昴
畢		好雨		畢		畢	畢	畢	畢
觜						觜	觜觿	觜觿	觜
參			參	參			參	參	參
井							東井	東井	井
鬼							輿鬼	輿鬼	鬼
柳						柳	柳	柳	柳
星	鳥						七星	七星	七星
張							張	張	張
翼							翼	翼	翼
軫							軫	軫	軫

표1. 典籍에 나타난 28宿의 이름을 표로 나타냄.

이후로는 해와 달을 관찰하지 않아도 날짜만 계산하면 정확히 해와 달과 계절과 일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28宿는 점점 政治的 성격을 가지고 占星學[47]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정확하고 간편한 24節氣는 민간의 실생활 속으로 파고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점점 민간에서도 28宿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8]. 古代의 歷代 典籍에 나타난 28宿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49].

45) 三統曆(BC 104年) 이전의 역법은 달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한 단순한 '달력만들기'의 수준이었다. 三統曆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數를 사용해서 해와 달과 오행성에 관한 기본적인 상수값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統과 元의 계산, 동짓달을 구하는 법, 정월초하루의 날짜, 윤달의 위치 설정, 冬至의 정확한 날짜, 24절기의 정확한 날짜, 계절을 오행에 배당하기 위한 계산, 해와 달이 만나는 28宿의 위치 계산, 해와 달이 만나는 날 夜半의 해와 달의 위치 계산, 각종 시간의 계산, 月蝕의 계산, 歲星의 속도 계산 등을 수많은 계산을 정확히 해 내었는데 이는 太初曆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p.207-222.

46) 春秋時代 이전에는 24節氣가 없었다. - 任應秋 : 運氣學說 五運六氣, 그 이론과 실체, 東文選, 1992, p.27.

47) 著者는 가장 최초의 占星學기록을 BC 90年경 간행된 ≪史記·天官書≫라고 정의했다. - 李成奎 : 古代中國의 占星學, journal of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Vol. 6, no. 1, 1984, p.17.

48) 24節氣가 달력에 채택된 것은 6세기 초 魏나라 시대의 ≪正光曆≫때부터이다. - 이정모 : 달력과 권력, 부키, 2002, p.186.

49) 김수길, 윤상철 공역 : 天文類秒, 大有學堂, 1998, p.444.의 도표를 참조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다. 원문과 다른 것을 다시 교정하였다. 이 도표는 본래 陳遵嬀 : 中國天文學史, 明文書局, 1985, p.66.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年代에서 堯典은 天文記錄의 年代. 詩經은 BC 1200年 - BC 770年경, 國語는 BC 551年 - BC 481年경, 爾雅는 孔子 前後 약

⑵ 28宿와 方位

古代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季節을 알 수 있게 되었다[50]. 현재 一般的으로 알려진 봄철의 별자리는 사자자리, 바다뱀자리, 컵자리, 까마귀자리, 목동자리, 왕관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등이고 여름철의 자리는 거문고자리 헤르쿨레스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방패자리 등이다. 또 가을철의 자리는 페가수스자리, 물병자리, 안드로메다자리, 양자리 등이며, 겨울철의 자리는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등이다[51]. 그런데 이것을 28

별자리 구분	黃道12宮에 따른 별자리	28宿	28宿의 方位
봄철 별자리	바다뱀자리, 컵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 까마귀, 천칭자리.	柳, 星, 張, 翼, 軫.	南方
		角, 亢, 氐, 房, 心, 尾, 箕.	東方
여름철 별자리	거문고자리, 헤르쿨레스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斗, 牛, 女, 虛, 危, 實, 壁.	北方
가을철 별자리	염소자리, 페가수스자리, 물병자리, 안드로메다자리, 양자리.		
		奎, 婁, 胃, 昴, 畢, 觜, 參.	西方
겨울철 별자리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井, 鬼.	南方

표2. 黃道12宮과 28宿의 季節配屬을 표로 정리한 것.

宿와 比較해보면 東은 봄을 象徵하고, 南은 여름을 象徵하고, 西는 가을을 象徵하고 北은 겨울을 象徵한다는 東洋의 傳統的인 五行思想과는 맞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西洋의 별자리는 그 계절에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계절을 정했으나, 東洋의 28宿는 太陽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方位를 정했다. 따라서 西洋의 黃道12宮과는 方位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古人들은 太陽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땅위에 막대기를 세워 그 그림자의 길이를 관측하였다. 그 중 가장 태양의 그림자가 길 때를 冬至로 정하고 가장 짧을 때를 夏至로 정해서 1年의 길이를 정하였다[52]. 또

28宿는 간격이 서로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밤하늘의 달이 거리가 일정하지 않은 28宿의 사이를 지나다 보면 매일 정확하게 하나의 별자리에서 다른 별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太陽을 기준으로 1年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따라서 태양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었고, 太陽이 28宿 중에서 어느 별자리에 있을 때를 알면 그 계절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옛날에는 태양이 北陸의 별자리 위치에 있을 때 얼음을 저장했다가, 西陸의 별자리가 아침에 동방에 보일 때 꺼내 썼습니다[53]."라는 문장에서도 잘 나타난다[54].

예를 들어 현재 南斗六星의 경우 週極星이 아니므로 관측되는 時期가 한정된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5월 남쪽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6월에는 남쪽하늘 한가운데 위치하며, 8월에는 남서쪽으로 사라지는데 6, 7월에 가장 잘 관측된다고 할 수 있다[55]. 이렇듯 여름철 별자리를 北方七宿으로 分類한 것은 太陽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2. 참조)[56].

BC 500年경, 呂氏春秋는 BC 240年의 저작, 淮南子는 BC 179年 -BC 122年경, 史記는 BC 91年의 著作이다.

50)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별이 매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日沒과 동시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기원전 3000年경 태양의 궤도에 별자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훗날 황도대를 12宮으로 균등하게 분할했다. - E.G. 리처즈 지음, 이민아 옮김 : 시간의 지도 달력, 까치, 2003, p.39.

51) 이태형 :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1998, p.59, p.131, p.199, p.269.

52) 이를 土圭라고 한다. 土圭는 表로 인하여 생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尺이다. 길이가 1尺5寸이고 玉으로 만들어져 있다. 周禮를 보면 大司空의 職責이란 土圭의 法을 세우고 土深을 측정하여 하루의 그림자 길이를 정하고 이것으로 땅의 중심을 구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周公이 營洛에 다섯 개의 表를 세울 때 川陽城쪽으로 가서 中表를 세웠다고 한다. 여기서 해의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中表에서 남쪽으로 1000里 떨어진 곳에 表를 하나 두고, 북쪽으로 1000里되는 곳에 表를 하나 두고 동쪽과 서쪽도 그렇게 하나씩 두었다. 이 다섯 表로 하루의 그림자 길이를 정하고, 이것으로 땅의 중심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해가 남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짧아지고 날씨는 상당히 무더워지며 해가 북쪽에 있어서 그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면 날씨는 매우 추워지게 된다. 해가 동쪽에 있으면 햇빛이 마치 저녁 햇살과 같게 되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며 해가 서쪽에 있으면 햇빛이 마치 아침 햇살과 같게 되고 陰이 많아지게 된다. - 張介賓 : 類經 運氣類, 大成文化社, 1989, 下 p.528.

53) 杜預 : 春秋左傳 卷三十五, 刊寫者未詳, 肅宗年間(1676年-1720年), p.171.

54) 古代에는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한 달을 정하고 陰曆을 사용했지만 계절과는 맞지 않아서 太陽의 움직임을 가지고 단점을 보완하고 계절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24節氣이다. - 안종수 : ≪禮記·月令≫에 나타난 中國人의 自然觀, 철학연구, 1997, p.61, p.62, p.65

55)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震檀學報, 1982, p.9.

56) 그림2는 지구를 중심으로 BC 2311年의 28宿 方位를 나타낸다. 가운데 숫자는 陽曆의 月이다. 화살표는 太陽이 움직이는 方向이다. 예를 들어 6월 夏至에는 太陽이 南方七宿 張宿의 位置에 있게 된다. 따라서 太陽의 반대편에 있는 北方七宿가 밤하늘에 나타난다. 9월이 되어 秋分에 太陽이 있으면, 太陽의 반대편 春分에 있는 西方七宿가 밤하늘에 나타난다. 겨울이 되어 12월 冬至에 太陽이 있으면, 반대편 夏至 부근의 南方七宿가 겨울 밤하늘에 나타난다. 3월 봄이

그림2. 季節과 28宿의 方位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

이러한 천문학의 발전으로 ≪禮記·月令≫이나 ≪呂氏春秋·12紀≫등에서는 매달 太陽의 위치를 밝혀놓았다. 또 훗날 四神과의 결합은 28宿의 方位개념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다. 이를 歲差運動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運氣七篇〉이 著述된 700年代의 28宿 方位를 그린 것. 28宿의 方位와 계절은 많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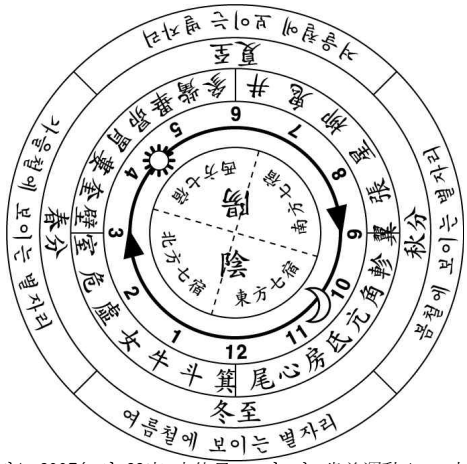


그림4. 2007年의 28宿 方位를 그린 것. 歲差運動으로 古代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高句麗의 古墳壁畵에서도 28宿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별자리 그림이 발견된 古墳은 22기가 있는데, 이 중 28宿가 모두 그려진 것은 제 3시기 경에 해당하는 '덕화리2호고분'과 '진파리4호고분'이다[57]. 이들 고분에 나타난 28宿의 方位는 그 당시 일반적인 天文學과는 매우 다른 方位를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高句麗의 古墳壁畵에서는 서양의 별자리와 같이 실제 보이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28宿의 方位를 정하였다. 즉, 北方의 중심을 28宿로 보지 않고 北斗七星으로 보아 북방에 두었으며 이에 화답하듯 南斗六星을 반드시 남쪽에 두었다. 이 외에도 또 덕화리2호분이나 진파리4호분은 角亢氐房이 동쪽에서 시작하지 않고 서쪽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진파리4호분은 28宿자체가 반시계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高句麗의 28宿는 상당히 비관측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天文觀測에 의한 필요성보다는 道敎的이고 宗敎的인 필요성에 의해 중요시 해 왔으며 매우 이념적이고 관념적이면서 체계적인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58].

되어 春分에 太陽이 머물러 있으면, 반대편 秋分의 위치에 있는 東方七宿가 밤하늘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28宿의 方位는 오랜 세월의 歲差運動으로 그림3과 그림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57) 덕화리2호고분(5세기 말~6세기 초 또는 6세기 말이라는 학설이 있다)에서 현재 별자리가 온전하게 판독되는 것은 室, 壁, 胃, 觜, 井, 鬼 등 6개이며, 부분적이나마 윤곽이 뚜렷한 것은 奎, 婁, 昴, 畢, 參, 柳 등 6개이며, 虛, 危 등은 자리 정도나 보여주고 나머지는 흔적도 찾기 힘들다. 室, 壁, 胃, 井, 柳의 5개 星宿名이 朱書되어 있다. -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105.

58) 上揭書 : pp.95-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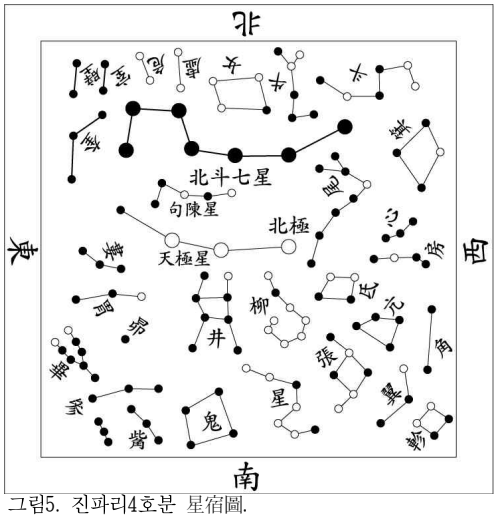


그림5. 진파리4호분 星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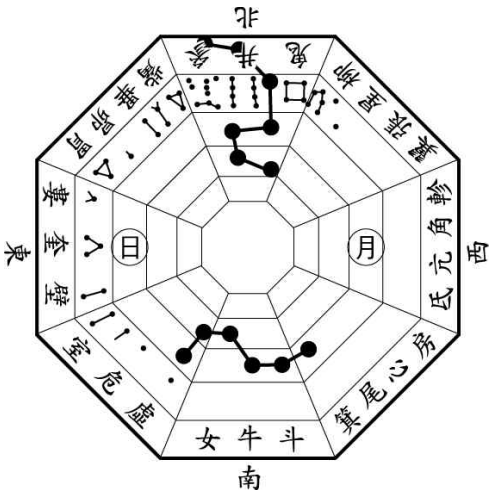


그림6. 덕화리 2호 星宿圖.

⑶ 28宿와 四神圖

4세기 前後 28宿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28宿의 위치변동이나 명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古代의 陰陽五行學說이나 기타사상과 융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59]. 특히 四神의 관념과 결합하여 天界方位의 수호신 역할을 겸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래 四神은 古代에 四方과 四時[60]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체계화된 것이다[61]. 四神은 하늘이 주관하는 계절적 변화를 수호신으로 化하여 나타낸 것인데, 자연의 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神格化하는 것은 고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점점 死後 墓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4세기 이후 高句麗 古墳壁畵에 항상 등장하게 된다[62].

우선 甲骨文字에는 四方과 四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四方을 지키는 神將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기록을 보았을 때 殷나라 시대에 이미 方位와 神將의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63]. 그 후 BC 433年경 曾侯乙墓 漆箱蓋의 그림에 靑龍과 白虎가 28宿의 名稱과 함께 그려져 있어 적어도 四神과 星象의 연계성이 이 시대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64]. 그 후 BC 2세기경 ≪淮南子·天文訓≫에 이르면 28宿보다는 五方을 중심으로 天文에 관련된 것들을 배속하게 된다[65]. 이때 方位와 神의 개념은 이미 정립이 되었으며, 이후 司馬遷의 ≪史記≫에 이르러서는 四神과 28宿가 서로 융합되어 거의 完備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東宮 蒼帝의 정령은 龍의 形象이며, 房宿와 心宿를 이루고 있다. …(中略)… 南宮 赤帝의 정령은 새의 형상으로 權星座와 衡星座로 이루어져 있다. …(中略)… 柳宿는 朱雀의 입으로 草木을 관장한다. 그리고 七星은 朱雀의 목이자 목구멍으로 긴급한 일을 관장한다. 張宿는 朱雀의 胃이자 주방으로 빈객을 대접하는 일을 한다. 翼宿는 朱雀의

59) 春秋時代가 되면서 일반 학자들도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 儒家, 道家, 陰陽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 兵家 등의 여러 사상이 발생하는 思想의 절정기에 도달했다. - 홍원식 :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20.

60) ≪淮南子≫에서는 "四時는 하늘의 官吏"라고 했다. - 劉安 : 淮南子, 刊寫者未詳, 1876, p.107.

61)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96.

62) 또한 四神은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靑龍과 白虎는 辟邪의 神獸로 朱雀과 玄武는 陰陽調和의 神獸로 여겨졌다. -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震檀學報, 1982, p.20.

63) 즉 이 시대에도 四方을 지키는 神이 있다고 믿었는데, 東方의 神은 析이나 開明이라 하였고 南方의 神은 因이나 署라고 하였고 西方의 神을 夷나 闖闔이라 하였고 北方의 神을 伏이나 寒이라고 하였다. -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p.34.

64) 28宿의 유물자료로는 가장 초기에 해당한다. 朱雀과 玄武는 빠져있다. -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96.

65) 東方은 木으로 그 곳의 황제는 太皞, 그 보좌는 句芒으로 規를 잡고 봄을 다스린다. 그곳의 神은 歲星이 되었고 거기에 속하는 짐승은 靑龍, 音은 角音, 日字는 甲乙이다. 南方은 火로 그 곳의 황제는 炎帝다. 그 보좌는 朱明으로 衡을 잡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神은 熒惑이 되었고 거기에 속하는 짐승은 朱雀, 音은 徵音, 日字는 丙丁이다. 中央은 土로 그 곳의 황제는 黃帝이며 그 보좌는 后土로 繩을 잡고 사방을 다스린다. 그 神은 鎭星이 되고 거기에 속하는 짐승은 黃龍, 音은 宮音, 日字는 戊己이다. 西方은 金으로 그 곳의 황제는 少昊이며 그 보좌는 蓐收로 矩을 잡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神은 太白이 되고 거기에 속하는 짐승은 白虎, 音은 商音, 日字는 庚辛이다. 北方은 水로 그 곳의 황제는 顓頊이며 그 보좌는 玄冥으로 權을 잡고 겨울을 다스린다. 그 神은 辰星이 되고 거기에 속하는 짐승은 玄武, 音은 羽音, 日字는 壬癸이다. - 劉安 : 淮南子, 刊寫者未詳, 1876, pp.108-110.

> 날개로 외국 손님의 접대를 관장한다. …(中略)… 西方의 天區에는 咸池座가 있다[66]. …(中略)… 參宿는 白虎의 형상이다. 參宿 밖에는 4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는 白虎의 왼쪽 어깨·오른쪽어깨·왼쪽 넓적다리·오른쪽 넓적다리이다. …(中略)… 北宮 黑帝의 정령은 龍蛇의 형상인데, 虛宿와 危宿로 이루어져 있다[67].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은 西宮이 다른 문장과 조금 다르다는 점이며, 南方의 朱雀을 제외하고는 ≪天文類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四神의 머리 몸 다리 꼬리 등이 28宿의 어떤 宿와 관계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다. 또 西方 白虎의 모습도 ≪天文類抄≫에서 보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四神의 形象을 28宿에 적용하는 것이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說文解字義證≫[68]을 살펴보아도 모두 ≪史記·天官書≫와 ≪漢書≫를 인용하여 天文과 관계된 註釋을 달고 있다. 이렇듯 司馬遷의 星象관념은 훗날 天文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69].

이후 四神에 대한 기록은 高句麗의 古墳壁畵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遺物의 수로 보아도 中國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아지게 된다[70]. 高句麗의 初期 四神圖는 5세기 초에 나타나는데 조금 조잡하게 그려진 반면, 6-7세기가 되면서 화려해지고 섬세해진다. 그리고 무덤의 출입문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6세기까지는 朱雀을 문 위에 1마리만 그렸으나 7세기 이후로는 문의 양 옆에 1마리씩 마주보고 서있다. 白虎의 머리는 어느 무덤에나 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집안 진파리 제 1호 무덤에 그려져 있는 白虎만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71]. 또 高句麗 古墳壁畵는 다분히 道敎와 佛敎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72], 이러한 경향은 잘 변하지 않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73]. 또 高麗時代에는 안동 서삼동 벽화고분(12세기 초)의 天庭 星宿圖, 高麗神王(1197年-1204年)王陵의 天庭 星宿圖, 恭愍王陵의 天庭 星宿圖,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의 天庭 星宿圖(14세기)가 대표적인 星宿圖인데, 모두 高句麗의 전통을 계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74].

朝鮮時代에 著作된 ≪天文類抄≫는 古代로부터 내려온 天文學을 총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는 책이다. ≪天文類抄≫에서는 四神圖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東宮은 靑帝가 주관하니 그 精은 蒼龍이며 角亢氐房心尾箕의 七宿로 이루어져 있다. 氐는 가슴이고 房은 배가 되며 箕는 항문이다. 봄을 주관하고 木을 주관하며 東嶽을 주관하고 東方을 주관하며 鱗蟲 360가지를 주관한다. 北宮은 黑帝가 주관하니 그 精은 玄武이며 斗牛女虛危室壁의 七宿로 이루어져 있다. 斗는 龍蛇가 서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고 牛는 뱀이 되며 女는 거북이 되고 虛危室壁은 각각 거북, 뱀, 蟠龍, 虯龍의 모습이 된다. 겨울을 주관하고 水를 주관하며 北嶽을 주관하고 北方을 주관하며 介蟲 360가지를 주관한다. 西宮은 白帝가 주관하니 그 精은 白虎이며 奎婁胃昴畢觜參의 七宿로 이루어져 있다. 奎는 白虎이고 婁와 胃와 昴는 白虎의 세 자식이며, 畢은 虎이고 觜와 參은 麒麟이 되는데 觜는 麒麟의 머리가 되고 參은 麒麟의 몸이 된다. 감추는 것을 주관하고 金을 주관하며 西嶽을 주관하고 西海을 주관하며 西方을 주관하고 毛蟲 360가지를 주관한다. 南宮은 赤帝가 주관하니 그 精은 朱雀이며 井鬼柳星張翼軫의 七宿로 이루어져 있다. 井은 朱雀의 머리이고 鬼는 눈이고 柳는 부리이고 星은 목이고 張은 모이주머니이며 翼은 깃촉이고 軫은 꼬리이다. 여름을 주관하고 火을 주관하며 南嶽을 주관하고 南海을 주관하며 南方을 주관하고 羽蟲 360가지를 주관한다. 中宮은 黃帝가 주관하니 그 精은 黃龍이며 軒轅이다. 머리에는 星宿와 張宿를

66) 譯者 朴一峰은 이 문장에 문맥상 缺文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 사마천 : 史記, 育文社, 1995, p.477.

67) 司馬遷 : 史記, 三元堂, 1834, pp.78-97.

68) 桂馥(1737~1805)이 지은 책. 중국 청나라의 학자, 문인. 山東省 曲阜縣 출생. 자는 東卉, 호는 老苔. 後漢時代 許愼이 서기 100年에 編纂한 ≪說文解字≫에 註釋을 함. ≪說文解字≫에서는 西方七宿인 昴를 "昴白虎宿星"라 하였고, 參은 "曑 商星也. 從晶 參聲."이라 하여 두 글자의 유래가 별자리와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69) ≪史記·天官書≫는 사실 28宿와 四神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형태를 天文知識을 보여주고 있다. ≪史記·天官書≫는 天文의 설명체계를 분명히 세우고 이것이 이후 하늘에 대한 이해의 기본적인 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94.

70) 전체 80기의 고구려 古墳 중 34기에서 四神이 나타나고 22기에서 별자리가 나타나는데, 그 중 5세기 전반의 집안 무용총에서부터 6세기 후반 집안 통구사신총까지 15기에서 四神圖가 나타난다. -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110.

71) 나일성 :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72-74.

72)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108.

73) 고구려의 고분 천문도는 8세기경 축조된 일본의 高松塚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고구려에서 건너간 歸化人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上揭書 : p.109.

74) 모두 東西에는 日月을 배치하고 南北에는 南斗와 北斗를 배치하면서 고구려의 傳統을 잇고 있다. 또한 파주 서곡리 무덤에는 신라시대 이후 도입된 十二支神像도 배치되어 있다. - 김일권 : 고구려벽화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 천문전통 고찰, 高句麗硏究 16輯, 2003, pp.268-274.

베고 있고 꼬리는 柳宿와 井宿에 걸어 놓고 몸체는 三台星을 비추고 있다. 四季을 주관하고 土을 주관하며 中嶽을 주관하고 黃河와 漢水, 淮水, 濟水를 주관하며, 黃帝氏의 자손을 주관하며 倮蟲 360가지를 주관한다[75].

여기서 西方의 麒麟은 ≪天文類抄≫의 독자적인 이론인데 四神에 麒麟이 처음 나타난 것은 4세기 말 안악 1호에서다. 이는 고구려 天文圖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76]. 黃帝를 제외한 ≪天文類抄≫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7. ≪天文類抄≫의 四神圖.

⑷ 28宿와 ≪步天歌≫

古代로부터 하늘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天文현상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중 가장 먼저 체계화 된 것은 ≪呂氏春秋≫의 九野說[77]이다. 九野說은 ≪淮南子≫에서도 '顥天'이 '景天'으로 바뀌고 '婺女'가 '須女'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나오는데, 아직 28宿를 적당하게 배열하는 방법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78].

幽天 星東壁奎婁	玄天 婺女虛危營室	變天 箕斗牽牛
顥天 胃昴畢	鈞天 角亢氐	蒼天 房心尾
朱天 觜觿參東井	炎天 輿鬼柳七星	陽天 張翼軫

표3. 九野說.

≪史記≫에 이르러서는 28宿 명칭의 변경은 없었지만 28宿의 천문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呂氏春秋≫와 ≪淮南子≫와는 다르게,≪史記·天官書≫부터는 실제 계절변화와 천문현상에 附合되도록 하늘에 대한 구획을 나누게 되었다. 따라서 하늘의 중심을 中宮이라 하여 天帝가 거주하는 중심으로 생각했고 나머지 星座를 모두 四方에 배속하였다. 28宿도 전통적인 古代의 方位 개념에 따라 각각 7宿로 나뉘었고 그 구획에 포함된 모든 星座도 모두 四方에 나뉘어 배속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古代 이후 약 5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약 5세기경에 이르러서 ≪步天歌≫[79]가 저술되었다. ≪步天歌≫는 ≪晋志≫, ≪隨志≫를 저본으로 하여 저작된 것으로, 하늘을 28宿, 太微垣, 紫微垣, 天市垣, 天河起沒로 분류하고 각 星宿의 星圖와 별의 위치를 七言의 詩歌 형태로 배열한 책인데, 唐代의 星座名을 기록한 것이다. ≪步天歌≫는 우리가 현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三垣, 28宿의 형식을 확립한 책이다. 즉 ≪史記·天官書≫에서는 하늘을 五行의 개념에 따라 다섯 方位로 나누고 각각의 방위에 五帝를 두고 五帝의 통솔아래 모든 星座를 배치했는데 ≪步天歌≫이후로는 北極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의 王權과 門閥貴族들과의 사회구조

75) 李純之 : 天文類秒, 驪江出版社, 1986, pp.3-4.

76) 그 외 西方에 세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넣은 점이나 中央의 黃龍을 포함한 내용들을 볼 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天文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 양홍진, 박명구 : 天文類抄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 연구, J. Astron. Space Sci. 20(1), 2003, p.89.

77) 天有九野, 地有九州, 土有九山, 山有九塞, 澤有九藪, 風有八等, 水有六川. 何謂九野, 中央曰鈞天, 其星角亢氐. 東方曰蒼天,其星房心尾. 東北曰變天, 其星箕斗牽牛. 北方曰玄天, 其星婺女虛危營室. 西北曰幽天, 其星東壁奎婁. 西方曰顥天, 其星胃昴畢. 西南曰朱天, 其星觜觿參東井. 南方曰炎天, 其星輿鬼柳七星. 東南曰陽天, 其星張翼軫. - 高誘 : 呂氏春秋, 藝文印書官館, 1974, p.285.

78)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62.

79) ≪步天歌≫는 隨의 丹元子, 王希明의 著作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고 다만 ≪唐書≫의 기록에 근거하여 알려져 왔으나 宋과 淸에 다시 저자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唐書≫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조선시대 陰陽科 天文部 科試 과목으로 재택되어 반드시 暗誦해야 했다. ≪步天歌≫에는 ≪舊法步天歌≫와 ≪新法步天歌≫가 있는데 ≪晋志≫를 저본으로 隨나라 또는 唐나라 때 편찬된 것을 ≪舊法步天歌≫라고 부르며, 이후 星座數의 증가로 ≪宋志≫와 남회인의 ≪靈臺儀象志≫를 저본으로 편찬된 것을 ≪新法步天歌≫라고 부른다. - 정성희 : 步天歌,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책임연구원.

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80].

이러한 사실은 司馬貞의 ≪史記·天官書·索隱≫에서도 "天文에는 五官이 있으며 官이란 星官을 말한다. 사람들의 官曹에 등위가 있는 것처럼 별자리에도 尊卑가 있어서 天官이라 한다[81]." 고 하여, ≪步天歌≫ 당시의 貴族社會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후 ≪宋志≫에 이르면 北極이 紫薇垣에 포함되어 三垣 중에서 으뜸이 되는데 이는 이 시대 皇帝와 皇族의 권력이 貴族을 능가한 것을 반영한다[82].

≪步天歌≫는 최소한 10세기경 高麗로 전해져 朝鮮時代 書雲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전통 星圖의 경전으로 활용되었다[83]. ≪步天歌≫에서 정립된 이와 같은 사상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東洋天文學의 基本思想으로 認識되고 있다. 안[84]은 이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옛 사람은 북극성을 옥황상제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을 임금이 사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紫微宮이라고 여겼다. 紫微宮의 담을 紫薇垣이라고 불렀는데, 紫微垣에 있는 별을 궁궐을 지키는 장군과 신하라고 생각했다. 紫微垣에서 북두칠성 아래 봄철 별자리 쪽으로 내려오면, 하늘나라 임금이 대신들과 나랏일을 상의하는, 하늘나라 정부종합청사격인 太微垣이 있다. 太微垣은 여러 장수가 에워싸고 지키고 있으며, 서양별자리로는 사자자리 레굴루스와 목동자리 아크투루스 사이에 있다. 그 옆에는 일반 백성이 사는 하늘나라 도시 天市垣이 있다. 천시원은 서양별자리로는 직녀성인 백조자리의 베가와 궁수자리, 전갈자리, 아크투루스, 왕관자리 등으로 에워싸인 구역에 있다. … (中略) … ≪步天歌≫나 ≪天文類抄≫에는 三垣에도 높낮이를 두어 太微垣이 上垣, 紫微垣이 中垣, 天市垣이 下垣으로 나온다. … (中略) … 별자리를 이루는 붙박이별은 經星이라고 불렀으며, 별들은 대표하는 28宿는 諸侯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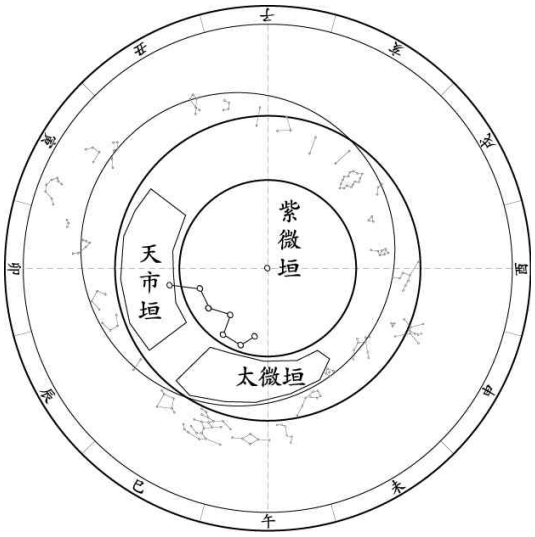


그림8. 三垣과 北斗七星과 28宿을 정리한 그림.

(5) 28宿의 天文學的 同定

≪步天歌≫에서 완성된 天文思想은 朝鮮의 대표적인 天文圖인 ≪天象列次分野地圖≫[85]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 후 300年이 지난 18세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西洋天文學이 流入되기 시작하였고, 儒敎的인 전통가치관에 큰 變革이 생기면서 서양식 天文學을 수용하여 만든 ≪赤道南北兩總星圖≫, ≪渾天全圖≫ 등이 제작되었는데, ≪天象列次分野地圖≫와 같은 舊法天文圖는 그 權威가 喪失되기 시작했다. 이는 ≪步天歌≫ 이후 東洋의 傳統的인 天文觀을 바꿀 정도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86].

西洋天文學은 明으로 처음 傳來되었는데 康熙 13年

80) 漢의 中央集權은 武帝때 완성되었다. 또 董仲舒의 주장에 따라 강력한 儒敎的 국가를 완성하였다. 또한 西域을 완전히 점령하여 실크로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어 豪族과 貴族들이 토지를 兼竝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질서는 오히려 豪族과 地主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후 魏晋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 豪族이 벼슬마저 독점하게 되고 中央官職에 임명되면서, 唐에 이르러서는 門閥貴族社會를 이루게 된다. 또 唐 太宗은 高句麗, 百濟, 突厥 등을 토멸하면서 異民族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게 된다. - 홍원식 : 중국의 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p.84-104.

81) 司馬遷 撰, 裴駰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 史記, 史學會社, 1902, p.157.

82) 정성희 : 步天歌,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책임연구원.

83) 김일권 : 高句麗 壁畵와 古代 동아시아의 壁畵 天文 傳統 考察, 高句麗硏究16輯, 2003, p.246.

84)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 현암사, 2000, pp.41-42.

85) 태조 4年 1395年 12월에 작성한 기록과 세종 1433年에 돌에 새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남아있는 석각본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설이 있다. 이후 선조4年(1571年)의 목판본이 있었는데 현재 일본에 겨우 한 장 남아있고, 숙종 13年(1687年)에 다시 새 돌판에 새겼는데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나일성 :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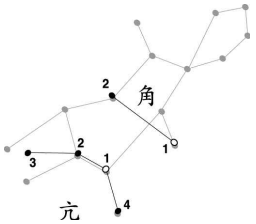
86) 조선후기 사회를 변동시키는데 일조한 서양천문학이 전래되기 전에는 ≪周髀算經≫의 개천설과 혼천설로 대표되는 고대우주론과 성리학적 우주구조론이 유교적 천문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서양천문학의 도입 이후 12중천설과 지원설, 지전설 등이 생겨났다. 이는 유교적인 우주관에서 벗어나 실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 정성희 :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책세상, 2003, pp.101-106.

(1674年) 南懷仁(F. Verbiest)이 ≪靈臺儀象志≫에 古代의 별자리 259개와 1129개의 별을 수록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批判이 있어서 그 후 1744年에 淸에 宣敎師로 와 있던 獨逸人 戴進賢(I. Koegler)이 ≪步天歌≫이래로 中世에 전해 내려오던 277자리 1319개 별 들을 서양의 별자리로 맞추어 내고, 이 星表를 ≪欽定儀象考成≫에 수록했다. 100年 뒤 周餘慶은 별들을 직접 관측하여 1845年 ≪欽定儀象考成 續編≫을 만들었다. 이 책은 ≪欽定儀象考成≫보다 157개 늘어난 3240개였는데, 별의 위치를 1844年의 春分點에 맞추었다[87].

朝鮮에 西洋天文學이 전해진 것은 1631年 仁祖 9年 鄭斗源이 ≪天文略≫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이고, 이후 1708年 肅宗 34年 ≪赤道南北兩總星圖≫가 되어서야 비로소 西洋式 天文圖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朝鮮에서도 英祖 때≪渾天全圖≫를 필두로 하여 여러 天文圖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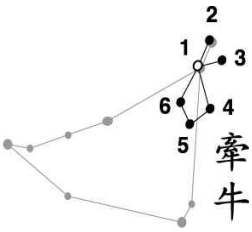
19世紀가 들어서면서 朝鮮의 天文學은 전반적으로 쇠퇴하였는데, 이러한 變化 속에서 西洋의 天文學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대에는 28宿가 서양학문의 도입으로 새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히팔쿠스(Hipparchus)의 방식에 따라 그 밝기를 알아볼 수 있는 등급별로 표시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1861年 觀象監의 책임자였던 南秉吉이 ≪星鏡≫을 저술하게 된다. 이 책은 ≪步天歌≫나 ≪天文類秒≫에 전해 내려오는 三垣, 28宿의 별을 赤道座標와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星表가 되었다. ≪星鏡≫은 ≪欽定儀象考成 續編≫에 나온 별 목록에 있는 별의 좌표를 1861年에 맞게 歲差運動을 보정하여 西洋天文學의 별자리를 제외한 東洋별자리만 골라서 실어 놓았다. 현재 ≪星鏡≫을 통해서 古代 별자리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근 同定된 ≪星鏡≫의 28宿를 다시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88].〈東方七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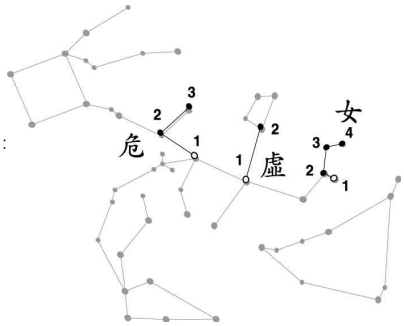
① 角宿 2星
角1 처녀α(α Vir : Spica)[主星]
角2 처녀ζ(ζ Vir : Heze).
② 亢宿 4星
亢1 처녀κ(κ Vir)[主星]
亢2 처녀ι(ι Vir : Syrma)
亢3 처녀φ(φVir)
亢4 처녀λ(λ Vir)
③ 氐宿 4星
氐1 천칭α2(α2Lib : Zubenelgenubi) [主星]
氐2 천칭ι1(ι1Lib)



氐3 천칭γ(γ Lib)
氐4 천칭β(β Lib : Zubeneschamali)
④ 房宿 4星[89]
房1 전갈π(π Sco)[主星]
房2 전갈ρ(ρ Sco)
房3 전갈δ(δ Sco : Dschubba)
房4 전갈β1(β1Sco : Graffias)
鉤鈐1 전갈ω1(ω1Sco)
鉤鈐2 전갈ω2(ω2Sco)
⑤ 心宿 3星
心1 전갈σ(σ Sco : Al Niyat)[主星]
心2 전갈α(α Sco : Antares)
心3 전갈τ(τ Sco)
⑥ 尾宿 9星
尾1 전갈μ1(μ1Sco)[主星]
尾2 전갈ε(ε Sco : Wei)
尾3 전갈ζ2(ζ2Sco)
尾4 전갈η(η Sco)
尾5 전갈θ(θ Sco : Sargas)
尾6 전갈ι1(ι1Sco)
尾7 전갈κ(κ Sco : Girtab)
尾8 전갈λ(λ Sco : Shaula)
尾9 전갈υ(υ Sco : Lesath)
⑦ 箕宿 4星
箕1 사수γ2(γ2Sgr : Alnasl)[主星]
箕2 사수δ(δ Sgr : Kaus Meridianalis)
箕3 사수ε(ε Sgr : Kaus Australis)
箕4 사수η(η Sgr : Arkab)

〈北方七宿〉
① 斗宿 6星
斗1 사수φ(φ Sgr)[主星]
斗2 사수λ(λ Sgr : Kaus Borealis)
斗3 사수μ(μ Sgr)
斗4 사수σ(σ Sgr : Nunki)
斗5 사수τ(τ Sgr)
斗6 사수ζ(ζ Sgr : Ascella)
② 牛宿 6星
牛1 염소β(β Cap : Dabih)[主星]
牛2 염소α2(α2Cap : Algedi)[90]
牛3 염소ξ2(ξ2Cap)
牛4 염소π(π Cap)
牛5 염소ο(ο Cap)
牛6 염소ρ(ρ Cap)
③ 女宿 4星
女1 물병ε(ε Aqr : Albali)[主星]
女2 물병μ(μ Aqr)
女3 물병4(4Aqr)
女4 물병3(3Aqr)
④ 虛宿 2星
虛1 물병β(β Aq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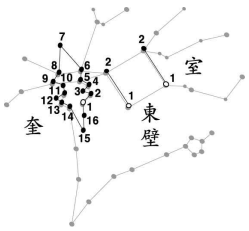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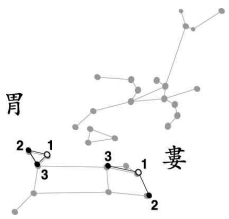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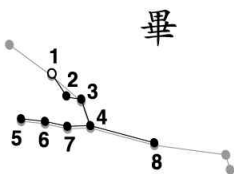
87) 안상현, 박창범, 유경로 : ≪星鏡≫에 실린 별들의 同定,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6, p.5.
88) 이 논문에서 ≪星鏡≫의 별 1449개 중 95.2%인 1380개를 同定하였다. - 上揭書 : p.21.
89) 房星은 鉤鈐星도 포함하여 말한다.
90) α1과 α2는 소의 왼쪽 뿔에 해당하는 별로써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二重星이다.

Sadalsuud)[主星]
虛2 조랑말α(α Equ : Kitalpha)
⑤ 危宿 3星
危1 물병α(α Aqr : Sadalmelik)[主星]
危2 페가수스θ(θ Peg : Baham)
危3 페가수스ε(ε Peg : Enif)
⑥ 室宿 2星
室1 페가수스α(α Peg : Markab)[主星]
室2 페가수스β(β Peg : Scheat)
⑦ 壁宿 2星
壁1 페가수스γ(γ Peg : Algenib)[主星]
壁2 안드로메다α(α And : Alphera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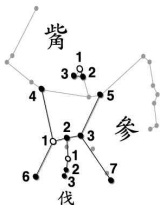
〈西方七宿〉
① 奎宿 16星
奎1 안드로메다η(η And)[主星]
奎2 안드로메다ζ(ζ And)
奎3 물고기65(65Psc)
奎4 안드로메다ε(ε And)
奎5 안드로메다δ(δ And)
奎6 안드로메다π(π And)
奎7 안드로메다ν(ν And)
奎8 안드로메다μ(μ And)
奎9 안드로메다β(β And : Mirach)
奎10 물고기78(78Psc)
奎11 물고기τ(τ Psc)
奎12 물고기91(91Psc)
奎13 물고기υ(υ Psc)
奎14 물고기φ(φ Psc)
奎14 물고기χ(χ Psc)
奎16 물고기ψ1(ψ 1Psc)
② 婁宿 3星
婁1 양β(β Ari : Sheratan)[主星]
婁2 양γ2(γ 2Ari : Mesarthim)
婁3 양α(α Ari : Hamal)
③ 胃宿 3星
胃1 양35(35Ari)[主星]
胃2 양39(39Ari)
胃3 양41(41Ari)
④ 昴宿 7星 (M45 Pleiades)
昴1 황소17(17Tau : Electra)[主星]
Atlas, Alcyone, Merope, Maia, Taygeta, Celaeno.
⑤ 畢宿 8星
畢1 황소ε(ε Tau : Ain)[主星]
畢2 황소δ3(δ 3Tau)
畢3 황소δ1(δ 1Tau)
畢4 황소γ(γ Tau)
畢5 황소α(α Tau : Aldebaran)
畢6 황소θ1(θ 1Tau)
畢7 황소 71(71Tau)
畢8 황소λ(λ Tau).
⑥ 觜宿 3星
觜1 오리온λ(λ Ori : Meissa)[主星]
觜2 오리온φ1(φ 1Ori)
觜3 오리온φ2(φ 2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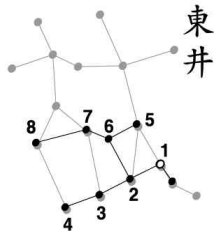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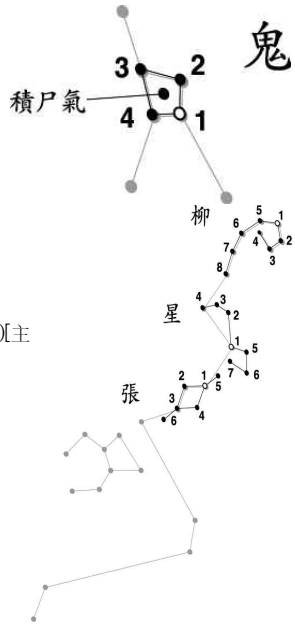


⑦ 參宿 10星[91]
參1 오리온ζ(ζ Ori : Alnitak)[主星]
參2 오리온ε(ε Ori : Alnilam)
參3 오리온δ(δ Ori : Mintaka)
參4 오리온α(α Ori : Betelgeuse)
參5 오리온γ(γ Ori : Bellatrix)
參6 오리온κ(κ Ori : Saiph)
參7 오리온β(β Ori : Rigel)
伐1 오리온42(42Orionis : KX Ori와 M45를 포함한 것)
伐2 오리온θ1(θ 1Ori : Trapezium, Orion대성운의 중심부)
伐3 오리온ι(ι Ori : Nair al Sa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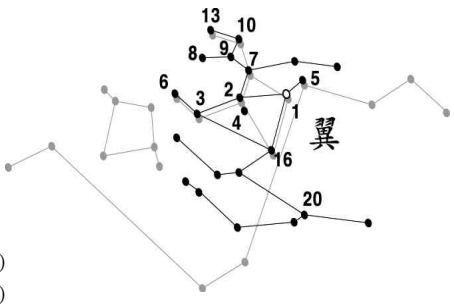
〈南方七宿〉
① 井宿 8星
井1 쌍둥이μ(μ Gem : Tejat Posterior)[主星]
井2 쌍둥이ν(ν Gem)
井3 쌍둥이γ(γ Gem : Alhena)
井4 쌍둥이ξ(ξ Gem : Alzirr)
井5 쌍둥이ε(ε Gem : Mebsuta)
井6 쌍둥이36(36Gem)
井7 쌍둥이ζ(ζ Gem : Mekbuda)
井8 쌍둥이λ(λ Gem)
鉞1 쌍둥이η(η Gem : Propus, Tejat Prior).
② 鬼宿 5星
鬼1 게θ(θ Cnc)[主星]
鬼2 게η(η Cnc)
鬼3 게γ(γ Cnc : Asellus Borealis)
鬼4 게δ(δ Cnc : Asellus Austrlis)
積尸氣 게ε(ε Cnc : 즉, M44, Beehive Cluster를 포함한 Praesepe성단을 말한다.)
③ 柳宿 8星
柳1 바다뱀δ(δ Hya)[主星]
柳2 바다뱀σ(σ Hya)
柳3 바다뱀η(η Hya)
柳4 바다뱀ρ(ρ Hya)
柳5 바다뱀ε(ε Hya)
柳6 바다뱀ζ(ζ Hya)
柳7 바다뱀ω(ω Hya)
柳8 바다뱀θ(θ Hya)
④ 星宿 7星
星1 바다뱀α(α Hya : Alphard)[主星]
星2 바다뱀τ1(τ 1Hya)
星3 바다뱀τ2(τ 2Hya)
星4 바다뱀ι(ι Hya)
星5 바다뱀27(27Hya)
星6 바다뱀26(26Hya)
星7 同定不能
⑤ 張宿 6星
張1 바다뱀υ1(υ 1Hya)[主星]
張2 바다뱀λ(λ H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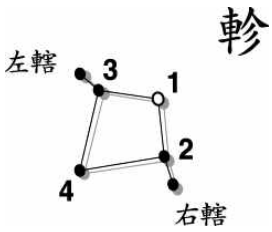


91) 벌성(伐星)을 포함해서 말한다.

張3 바다뱀 μ (μ Hya)
張4 同定不能
張5 바다뱀 $\varkappa$ ($\varkappa$ Hya)
張6 바다뱀 ϕ 3(ϕ 3Hya)
⑥ 翼宿 22星
翼1 컵 α (α Crt : Alkes)[主星]
翼2 컵 γ (γ Crt)
翼3 컵 ζ (ζ Crt)
翼4 컵 λ (λ Crt)
翼5 컵 ν (ν Crt)
翼6 컵 η (η Crt)
翼7 컵 δ (δ Crt)
翼8 컵 ι (ι Crt)
翼9 컵 $\varkappa$ ($\varkappa$ Crt)
翼10 컵 ε (ε Crt)
翼13 컵 θ (θ Crt)
翼16 컵 β (β Crt)
翼20 뱀 χ 1(χ 1Hya)
翼11, 12, 14, 15, 17, 18, 19, 21, 22는 同定不能



⑦ 軫宿 6星
軫1 까마귀 γ (γ Crv : Gienah)[主星]
軫2 까마귀 ε (ε Crv : Minkar)
軫3 까마귀 δ (δ Crv : Algorab)
軫4 까마귀 β (β Crv : Kraz)
右轄1 까마귀 α (α Crv : Alchiba)
左轄1 까마귀 η (η Crv)



2) 28宿와 曆數

(1) 歲와의 관계

古代의 사람들은 오랜 관찰 끝에 하늘에 五星이 있음을 알아내고 각각 行星의 週期도 알아내었다. 그 중 木星은 歲星이라고 하여 예전부터 公轉週期가 12年 정도로 알려졌다. 즉 天球를 12年 만에 한 바퀴 돌게 된다. 이러한 특성상 歲星의 위치로 해(年)를 표기하는 '歲星紀年法' 또는 '太歲紀年法'이 널리 통용되었다.[92] 이렇게 年을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해(年)에 따라 가뭄이 들거나 水害가 발생한다고 하는 등의 占星的인 내용이 있고. 주로 그 해의 수확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는 歲[93]星의 움직임이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94]. ≪玉函山房輯佚書·農家類·范子計然卷上·內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太陰(歲星)이 처음 3年간 오행 중 金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풍년이 들고, 太陰이 水에 있으면 3年간 수확에 지장이 있습니다. 木에 머물면 3年간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고, 火에 있으면 3年간 가뭄이 듭니다. 따라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때가 있고, 저장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萬物은 3年이 지나기 전에 터져 나온다는 것이 요점입니다[95].

또한 歲星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도 28宿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左傳·襄公 28年條≫(BC 545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魯襄公 28年 봄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노나라 대부인 梓愼이 말하길 금년에 宋나라와 鄭나라가 흉년이 들 것이다. 今年의 歲星이 응당 星紀인 丑의 斗牛之間에 있어야 하는데[96] 침범하여 子인 虛危之間에 있어 淫行失次하여 때의 재앙이 있으니 이것은 盛陰이 用事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뱀, 즉 玄武의 宿인 虛危가 龍인 歲星木을 타고 있는 것이니 龍인 歲星은 本位가 東方에 있고 東方은 房心이 宋이 되고 角亢이 鄭이 되니 이에 해당하는 宋과 鄭에 반드시 흉년이 들 것이다. 玄枵는 虛에 있고 枵는 소모된다는 의미이니, 토지가 虛해지고 백성이 감해질 것이니 흉년이 들지 않고 어찌하겠는가[97]?

이렇듯 28宿는 그 해의 기후와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했다. 또 위의 예는 12年마다 같은 기후의 해가 돌아오고 각각의 해에도 太過不及이 있었다는 것을 예부터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歲陰을 설정하여 동시에 12支를 통해 歲陰의 위치

---

92) 歲星紀年法은 대략 BC 4세기 초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干支紀年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103.

93) 年은 사람(人)이 볏단(禾)을 지고 가는 모습이고, 歲는 창(戌)과 두 발(步)로 구성된 글자로, 收穫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이로부터 年과 같이 1年에 1번 하는 收穫의 개념으로 한 해를 표현했다. - 하영삼 : 甲骨文字에 나타난 古代中國人의 時間觀, 동의대학교, 1999, p.17.

94) 이문규 :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p.103.

95) 太陰三歲處金則穰. 三歲處水則毁. 三歲處木則康. 三歲處火則旱. 故散有時, 積羅有時, 領則決萬物不過三歲而發矣. - 范蠡 : 玉函山房輯佚書 六,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0, p334

96) 이는 歲星이 12次중에서 어떤 次에 들었는가를 기준으로 그 해의 성격을 정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弔針文≫이나 제사를 올릴 때 ≪祝文≫에 "唯歲次某月某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木星이 아무개 次에 드는 해의 某月 某日입니다 … "라는 뜻이다. -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p.16.

97) 左傳襄公二十八年春, 無氷. 梓愼曰 : 今茲宋, 鄭其饑乎! 歲在星紀, 而淫於玄枵. 以有時菑, 陰不堪陽. 蛇乘龍, 龍, 宋,鄭之星也. 宋,鄭必饑. 玄枵,虛中也. 枵,耗名也. 土虛而民耗, 不饑何爲? - 杜預 : 春秋左傳 卷三十二, 刊寫者未詳, 肅宗年間(1676-1720), p.2.

를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黃帝內經≫의 運氣學說에 자연스럽게 도입되어 발전되었다.

歲	歲陰	歲星의 位置	28宿의 특징
攝提格	寅	丑	1月에 歲星이 새벽에 斗, 牛와 동쪽에 나타남
單閼	卯	子	2月에 歲星이 새벽에 女, 虛, 危와 동쪽에 나타남
執徐	辰	亥	3月에 歲星이 새벽에 室, 壁과 동쪽에 나타남
大荒落	巳	戌	4月에 歲星이 새벽에 奎, 婁와 동쪽에 나타남
敦牂	午	酉	5月에 歲星이 새벽에 胃, 昴, 畢과 동쪽에 나타남
叶洽	未	申	6月에 歲星이 새벽에 觜, 參과 동쪽에 나타남
涒灘	申	未	7月에 歲星이 새벽에 井, 鬼와 동쪽에 나타남
作鄂	酉	午	8月에 歲星이 새벽에 柳, 星, 張과 동쪽에 나타남
閹茂	戌	巳	9月에 歲星이 새벽에 翼, 軫과 동쪽에 나타남
大淵獻	亥	辰	10月에 歲星이 새벽에 角, 亢과 동쪽에 나타남
困敦	子	卯	11月에 歲星이 새벽에 氐, 房, 心과 동쪽에 나타남
赤奮若	丑	寅	12月에 歲星이 새벽에 尾, 箕와 동쪽에 나타남

표4. ≪史記≫에 나타난 歲星의 運行과 歲陰.

≪史記·天官書≫를 보면 표4와 같이 歲星과 歲陰과 28宿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攝提格의 해에는 歲陰이 寅의 위치에 있게 되므로 寅年이 되는데, 그 해에는 1月에 歲星이 새벽에 斗, 牛와 같이 동쪽에 나타난다[98].

歲는 歲陰이 채택되기 전부터 쓰인 것으로 古甲子라고 한다[99]. 古甲子는 두 가지 기록이 전해 내려온다. 우선 ≪通鑑外經≫에는 盤古時代에 干支의 名을 作하여 歲數에 이용했다 하며 이때의 十二支는 困敦, 赤奮若, 攝提格, 單閼, 執徐, 大荒落, 敦牂, 協洽, 涒灘, 作噩, 奄茂, 大淵獻이며 幹枝라 했고 이때의 幹枝를 黃帝 때 와서 말뜻을 풀어 新干支를 만들었다고 한다[100]. 그리고 ≪桓檀古記≫에는 檀君 邱乙[101]이 BC 2096年에 처음으로 六十甲子를 이용해서 처음 冊曆을 만들고 10월을 상달이라 하고 이를 한해의 시작이라 했는데, 亥를 支于離, 子를 曉陽, 丑을 加多, 寅을 萬良, 卯를 新特白, 辰을 密多, 巳를 飛頓, 午를 隆飛, 未를 順方, 申을 鳴條, 酉를 雲頭, 戌을 皆福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훗날 12支로 발전되었다고 한다[102]. 이를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오랜 세월동안 歲의 명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古代 歲星과 28宿의 관계에서 발전된 12支는 훗날 東洋의 모든 思想과 生活의 척도가 되었다.

⑵ 12次 및 12宮과의 관계

옛 사람들은 계절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太陽과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太陽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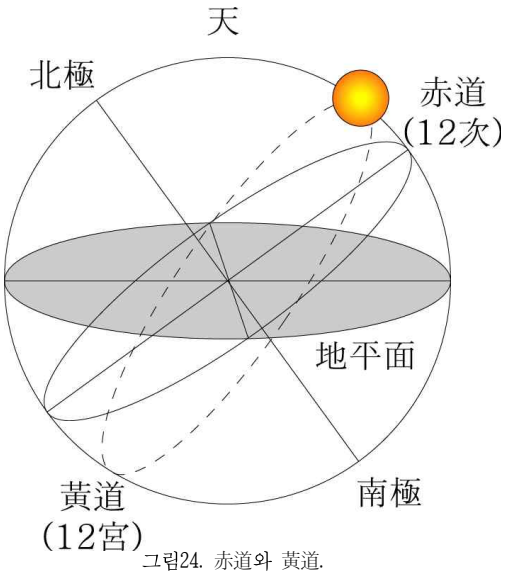


그림24. 赤道와 黃道.

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였다. 地球가 太陽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年이라고 하고, 달이 地球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달이라고 한다. 따라서 地球에서 하늘을 보면 太陽[103]와 달[104]은 1年에 12번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만나는 점을 12次 또는 12宮이라고 한다. 太陽이

98) 천문관측프로그램 Starry Night Pro 4.0.4로 확인한 결과 1876年은 丙子年인데, 이 날 陰曆 11월 10일에는 歲星이 오전 7시 15분쯤에 房, 心 부근에 나타난다.
99) 이현종 : 東洋年表, 探求堂, 2006, p.151.
100) 임승국 :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1995, p.72.
101) 古朝鮮의 5代 檀君 在位 16年. 기록을 보면 乙丑 4年(BC 2096年) 처음으로 六十甲子를 사용하여 冊曆을 만들었다고 되어있다. - 上揭書 : p.174.
102) 上揭書 : p.72.

지나가는 길인 黃道를 12等分 한 것을 12黃道宮[105]이라 하고, 赤道를 12等分 한 것을 12次라고 한다. 또 黃道와 赤道가 만났을 때를 春分과 秋分이라 하고, 黃道와 赤道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를 夏至와 冬至라고 한다[106].

이렇듯 계절을 나누는데 東西洋이 모두 太陽의 움직임을 관찰한 이유는 바로 계절이 절대적으로 太陽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107]. 또 赤道를 12次로 等分하는데는 28宿의 위치를 알아내는 법과 12달이 항상 같은 계절을 갖도록 계산하는 曆法의 발달도 예전부터 매우 중요하였다[108].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10세기 것으로 보이는 고문서에는 12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09].

> 壽星이란 次는 3月에 보이는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3月은 萬物이 땅에서 나오는 때이므로, 봄기운이 퍼져 萬物의 목숨(壽)이 시작되는 별자리라는 뜻으로 壽星이라고 했다.(3月)
>
> 전갈자리 안타레스는 東方靑龍의 心臟 노릇을 하는 별로서 古代 東洋에서는 불 같은 별이란 뜻으로 火星이라고 불렀다. 東方은 五行上 나무인데, 불이 나무의 心에서 나오므로 大火를 次의 이름으로 했다.(2月)
>
> 東方七舍는 五行上 나무이며, 尾宿는 끝 부분에 해당하는 별자리다. 北方七舍는 五行上 물이며, 斗宿는 첫 번째 별자리다. 나무와 물을 나누는(析) 기준이 되는 次이므로 析木이라고 했다.(1月)
>
> 星紀는 萬物을 통섭한다는 뜻이다. 12月이 만물의 생육에서 시작과 끝을 나누는 기준점 노릇을 하므로 그렇게 이름 붙였다.(12月)
>
> 玄은 검다는 뜻으로 北方을 상징하는 색이다. 枵는 죽는다(耗)는 뜻이다. 11月이 되면 陰氣가 매우 盛하여 萬物이 죽어가므로 天地가 공허하다는 뜻으로 玄枵라고 했다.(11月)
>
> 娵訾는 한탄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陰氣가 비로소 旺盛해지므로 萬物이 제 빛을 잃고 陽氣가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다.(10月)
>
> 降婁에서 降은 내려온다는 뜻이고, 婁는 굽는다, 역전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降婁는 陽氣가 衰하고 陰氣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萬物이 기울어 낙엽을 떨군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9月)
>
> 大梁에서 梁은 딱딱하다는 뜻이다. 8월에는 처음으로 흰 이슬이 내려 萬物이 딱딱해지므로 大梁이라고 했다.(8月)
>
> 7月이 되면 萬物이 매우 成長하여 陰氣가 무거워져 가라앉으면서(沈) 열매(實)를 맺으므로 實沈

---

103) 一年은 하늘(天)이 하루에 1度씩 움직여 한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와 처음에 해와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을 말한다. 하늘은 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즉 하루에 해가 360度를 움직이면 하늘은 360度보다 1度와 13分 7厘 8絲 3忽을 더 움직인다. 즉 해가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오면 하늘은 1度와 13分 7厘 8絲 3忽을 더 左側으로 이동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24시간 후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루하루 누적되어 360日이 지나게 되면 모두 합하여 4,935分이 되는데 하루에 움직이는 940分씩을 나누어 가면 5일과 235分이 된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25.0刻이 되는 것이다. 즉, 하늘은 점점 左旋하여 365日과 1/4日이 걸려서야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이 天道의 一年이다. 본래는 一年이 360日로 되어 있어야 하나 하늘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365日25刻이 되는 것이다. - 張介賓 : 類經 運氣類, 大成文化社, 1989, 下 p.528.

104) 해가 하루에 한번 하늘을 돌아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올 때에 달은 360度에서 12度와 7/19度가 모자라게 움직인다. 따라서 처음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29日과 499/940日이 지나면 다시 처음의 자리에서 해와 만나게 되는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29日과 53.0刻이 된다. 이것을 대략 29일 또는 30일로 정하여 한 달로 삼는다. 따라서 매달 441分이 비게 되는데 이것이 一年이 되면 5,292分이 되고 하루에 움직이는 940分을 계산해 보면 每年 5日과 592分이 비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5日과 63.0刻이 된다. 이것으로 一年을 계산하면 즉 360日에서 5일이 조금 넘게 모자라게 되어 354日37刻이 된다. - 上揭書 : p.528.

105) 세계최초의 12宮圖로 알려진 '덴데라천궁도'는 이집트 기원전 1세기경 클레오파트라 7세 때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 이 천궁도에는 용자리 큰곰자리 작은곰지라 등의 주극성과 남쪽하늘의 오리온과 시리우스, 5행성(木火土金水), 12궁별자리, 그리고 36데칸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 김 성 : 고대 이집트 별자리 관측의 기원과 발전, 大邱史學 第74輯, 2004, p.250, p.252.

106) 12黃道宮에서는 春分, 秋分, 冬至, 夏至가 각 黃道宮의 初入에 들어왔을 때를 가리키지만, 12分野에서는 각 宮의 중간에 왔을 때를 가리킨다. 즉 해마다 歲星이 보이는 곳을 基準으로 天球의 赤道를 열두 구역으로 나누고 그 領域을 次라고 부른 것이다. - 김수길, 윤상철 공역 : 天文類秒, 大有學堂, 1998, p.18.

107) 太陽의 黑點數에 따라 수천 年간 地球는 寒冷期와 溫暖期를 반복했으며 수많은 文明이 盛衰를 거듭했다. - 유소민 :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p.53.

108) 太陽을 기준하지 않고 순수하게 달만 기준해서 曆法을 정하면 계절과 달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즉 어떤 해에는 1월이 겨울이 되었다가 어떤 해에는 1월이 여름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太陽과 달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붙박이별이 있는 天球와 太陽이 360일 만에 처음 자리에서 만나야 하나, 天球가 조금 빨리 움직여서 365일과 1/4日이 지나야 처음 만난 자리로 온다. 달은 해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여 354日과 37刻이 지나야 처음 해와 만났던 자리에 오게 된다. 또 한해의 출발점으로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므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을 冬至로 정하고, 冬至를 子月(陰曆11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閏月을 설정하여 계절과 달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였다. - 張介賓 : 類經, 大成文化社, 1989, 下 p.528.

109) 원문을 찾을 수 없어서 인용문으로 대신함. -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pp.17-19.

이라고 했다.(7月)

井宿는 朱雀의 벼슬이고 柳宿는 부리이다. 朱雀의 머리를 나타내는 별자리다. 그래서 새를 나타내는 메추리 鶉과 머리 首를 더하여 鶉首라고 했다.(6月)

南方을 五行上 불이라고 하는 까닭은 5月에 陽氣가 비로소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5월경에는 전갈자리 안타레스인 火星이 저녁에 南中하므로 火자를 쓰고 이 次를 이루는 柳宿, 七星, 張宿 등은 南方 朱雀을 이루는 별자리이므로 새를 뜻하는 메추리 鶉자를 더하여 鶉火라고 했다.(5月)

南方七舍는 전체적으로 朱雀의 모습인데, 軫宿가 꼬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鶉尾라고 했다.(4月)

훗날 東洋에서 12黃道宮을 받아들인 것은 바빌로니아의 12宮道(Luna Zodiac)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110]. 12宮과 12次와 28宿와의 관계를 圖表로 나타내면 표5와 같다.

12次	12宮	28宿	分至點	28宿方位
수성(壽星)	天秤辰宮(천칭)	軫, 角, 亢		東
대화(大火)	天蝎卯宮(전갈)	氐, 房, 心, 尾		
석목(析木)	人馬寅宮(궁수)	尾, 箕, 斗	冬至	
성기(星紀)	磨羯丑宮(염소)	斗, 牛, 女		北
현효(玄枵)	寶甁子宮(물병)	女, 虛, 危		
취자(娵訾)	雙漁亥宮(물고기)	危, 室, 壁, 圭	春分	
강루(降婁)	白羊戌宮(양)	圭, 婁, 胃		西
대량(大梁)	金牛酉宮(황소)	胃, 昴, 畢		
실침(實沈)	陰陽申宮(쌍둥이)	畢, 觜, 參, 井	夏至	
순수(鶉首)	巨蟹未宮(게자리)	井, 鬼, 柳		南
순화(鶉火)	獅子午宮(사자)	星, 張		
순미(鶉尾)	雙女巳宮(처녀)	張, 翼, 軫	秋分	

표5. 12次와 12宮과 28宿의 關係를 정리한 그림.

⑶ 24節氣와의 관계

옛 사람들은 春夏秋冬의 길이를 알기위해 圭表를 세우고, 해의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길 때와 짧을 때를 각각 冬至와 夏至로 정하여서 1年을 정하였다. ≪書經·虞書·堯典≫에 이미 日中, 日永, 宵中, 日短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春分, 夏至, 秋分, 冬至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 이미 1年을 4季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BC 240年 ≪禮記·月令≫에 이르면 立春, 日夜分(春分), 立夏, 日長至(夏至), 立秋, 日夜分(秋分), 立冬, 日短至(冬至) 등의 8개 節氣가 나타난다[111].

110)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p.132.

111) 孟春(正月)에는 太陽이 營室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參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尾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立春이 들어있다.……仲春(2月)에는 太陽이 奎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弧(鬼)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建(斗)이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春分).……孟夏(4月)의 太陽은 畢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翼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그런데 ≪禮記·月令≫의 글은 아직 24節氣가 完備되지 않아 28宿를 爲主로 季節을 해석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12]. BC 100年경 ≪淮南子·時則訓≫에 오면 24節氣의 명칭이 비로소 모두 나타나지만, 太陽의 位置를 기준으로 季節을 인식하는 것에서 北斗七星의 제7星인 招搖의 方向을 보고 季節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禮記·月令≫과 同一한 內容을 보여주고 있다[113]. 즉 이 시대에는 24節氣와 28宿가 동등하고 다양하게 生活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5. <月令>의 28宿 出入을 그림으로 정리함.
검은 반원은 별이 보이는 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月에는 參에서 尾까지가 별이 보이는 밤이 된다. 계절에 따라 검은 부채꼴 반원의 각도가 달라진다.

그림26. ≪天象列次分野地圖≫의 24節氣圖. - 28宿의 出沒을 기준하여 節氣를 나타내었다.

이후 약 700年 뒤 6세기 ≪正光曆≫에 이르러 24節氣가 달력에 정식으로 채택되게 되었다[114]. 그 후 1395年 朝鮮의 ≪天象列次分野地圖≫ 上段에 圓形으로 28宿와 24節氣의 관계에 대해 나타내었는데, 이 당시에도 ≪禮記·月令≫과 크게 다르지 않아 '冬至에는 해가 질 때 室宿가 하늘 가운데 있고 해가 뜰 때 軫宿가 하늘 가운데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24節氣를 인식하였다.

그 후 약 50年 뒤, 1442年 朝鮮 世宗 때에 西域(Rum 지역) 출신의 마샤이헤이(Mashayihei) 가 당시 南京 欽天監에서 일하면서 만든 ≪回回曆≫의 영향을 받아 李純之와 金淡이 ≪七政算外篇≫을 완성하였다. ≪回回曆≫의 根本은 크기가 각각 다른 28宿 대신에 12宮을 이용하여 1年의 길이를 계산한 것으로, 曆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曆法의 發達은 明의 ≪七政推步≫보다 35年이나 앞선 것이었다[115].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24節氣의 계산법이 정확해지면서 28宿의 重要性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 후 1624年 ≪類經圖翼·四季日纏宿度晝夜長短刻數≫에 보면 24節氣의 정확한 出入時間을 해와 28宿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나타내었다.

> 冬至는 11月中에 있고 해는 箕宿 4度에 묶여 있으며 辰初初刻(약 오전 7시 2분)에 나와 申正四刻(약 오후 4시 47분)에 들어간다. 낮의 길이는 41

틀 때에는 女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立夏가 들어있다.……仲夏(5月)의 太陽은 井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亢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危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夏至)……孟秋(7月)의 太陽은 翼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斗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畢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立秋가 들어있다.……仲秋(8月)의 太陽은 角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牛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觜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秋分)……孟冬(10月)의 太陽은 尾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危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星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立冬이 들어있다.……仲冬(11月)의 太陽은 斗宿의 위치에 있으며 해질 무렵에는 壁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이고 동이 틀 때에는 軫宿가 남쪽하늘 中央에 보인다.……이달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冬至). - 林道春 : 禮記, 刊寫者未詳, 1628, pp.1-46.

112) 著者는 月令記事의 관측연대를 能田이 설정한 BC 7세기말보다 BC 4세기 초로 보았다. - 김기협 : ≪禮記·月令≫의 昏旦中星記事 硏究, 한국과학사학회지Vol.2, 1980, p.160.

113) 孟春의 달(1월)에는 招搖가 寅을 가리키는데 황혼에는 參星이 남방 중앙에 있으나 아침에는 尾星이 남방 중앙에 있다. - 劉安 : 淮南子, 刊寫者未詳, 1876, p.38.

114) 24節氣와 72候는 이미 中國의 春秋戰國時代 周公이 제정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달력에 채택된 것은 6世紀 初 魏 나라의 ≪正光曆≫때부터이다. - 이정모 : 달력과 권력, 부키, 2002, p.186.

115) 나일성 :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214-219.

刻이고 밤의 길이는 59刻이다[116].

이는 24節氣에 대한 時間的 槪念이 전 時代에 비해 더 세밀해졌음을 나타낸다. 28宿는 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만 사용되었고, 별이 뜨고 지는 것을 표시하는 것 대신 해가 뜨는 時刻과 지는 時刻을 표시하여 季節을 인식하였다. 또한 하루에 해가 떠있는 時間도 표시하였다. 이는 古代 이후 28宿의 發展이 정체된 반면 24節氣의 學問的 發展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意味한다[117]. 또한 일반사람들도 時刻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曆法이 발달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훗날 그레고리역이 도입된 후 24節氣는 아주 알기 쉽게 되었다[118]. 이렇듯 24節氣는 ≪正光曆≫에서 약 1500年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진 것이다[119]. 현재 韓國과 中國과 日本에서는 모두 24節氣를 기준으로 생활 속에 季節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⑷ 柶戱(윷놀이)와의 관계

28宿의 曆數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윷놀이가 있다. 윷놀이는 國字로 柶戱 또는 擲柶라고 하는데 韓民族 고유의 놀이이다[120]. 예로부터 高官집 白髮老人조차 자존심도 없이 턱이 떨어질 정도로 웃어가며 火爐옆에서 밤을 새워가며 아이들과 노는 놀이로써,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즐기는 것이라고 牧隱詩(1380年)에 묘사되어 있다고 하였다[121]. 또 주변 다른 민족에게서는 이와 비슷한 놀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漢族의 樗蒲[122]와 비교하기도 하나 전혀 다른 놀이이다. 윷과 비슷한 놀이는 오히려 北美나 멕시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소노마레이크에 있는 박물관에는 한국의 윷놀이와 똑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다. 또 멕시코에서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파톨리(patolli)라는 게임은 마야에서 유래되었는데 윷판의 점들도 모두 28개로 28宿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놀이는 모두 하늘에 神의 뜻을 묻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이는 古代에 한민족의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최남선도 윷놀이는 본래 農家에서 水鄕(低地帶)과 山農(高地帶)으로 나누어 어느 쪽이 잘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占法이었는데 근래에는 일반 遊戱가 되었고, 부인네들의 "윳괘ㅅ점"에서 약간 그전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124]. 즉 우리나라의 윷놀이도 종교적인 儀式에서 출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張志淵 先生은 ≪萬國事物起源歷史≫에서 "柶ᄂᆞᆫ 四箇木으로 骰子를 造홈이니 其法이 本 巫卜에셔 出홈이라. 古者神佛祠廟에 楔를 擲ᄒᆞ야 其俯仰으로써 吉凶을 卜ᄒᆞᄂᆞ니 我國은 此로써 歲初에 一年의 吉凶을 卜홈으로 前代에 此風이 盛行ᄒᆞ더니 後來에 遂長柶를 變成ᄒᆞ니라"고 하였다[125]. 이렇듯 여러 문헌에서 윷놀이의 기원이 매우 오래되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기록은 ≪桓檀古記·馬韓世家≫에 처음 나타난다.

> 사람과 문물이 어느덧 풍숙하였으니 때마침 이때에 紫府先生께서 七回祭神의 冊曆을 만드시고 三皇內文을 天陛에 진상하니. 천왕께서 이를 칭찬하였다. 三淸宮을 세우사 그곳에 거하시니, 共工·軒轅·倉頡·大撓의 무리가 모두 와 여기서 배웠다. 이에 윷놀이를 만들어 이로써 桓易을 강연하니 대저 神誌赫德이 적은 바로 天符의 遺意였다[126].

즉, 윷이 桓易에서 나왔으며 桓易은 天符經과 冊曆에서 나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훗날 윷놀이를 天文圖라고 정의하고 哲學的으로 의미를 부여한 唯一한 사람은 朝鮮의 金文豹(1568年-1608年)다. 그는 柶圖說[127]에

116) 張介賓 :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9, p.20.

117) 안종근, 강정수 : 天文·地理·人事로 살펴본 24節氣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1호, 2000, p.82.

118) 정확한 1節氣는 365.2425일 ÷ 24節氣 = 15.2184일 이다. - 나일성 :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204.

119) 1895年을 보면 '春分 3월 21일 卯初初刻十分, 秋分 9월 23일 申正三刻七分' 등으로 기재하였다. - 新南山萬歲曆, 南山堂, 1985, pp.68-69.

120) 박갑수 : 사람을 왜 윷으로 보나?, 한글+한자문화, 2003, p.80.

121) 일반적으로 윷놀이에 쓰이는 도·개·걸·윷·모는 農事에서 기르는 가축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古代 夫餘의 豬加·狗加·牛加·馬加·大使 등의 官職名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론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없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 이일영 : 윷의 由來와 名稱에 등에 관한 考察, 한국학보(2), 1976, p.131.

122) 樗蒲는 5개의 나뭇가락으로 검고 흰 색을 칠하여 구분하고 采를 얻는 놀이로, 고대의 記錄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樗蒲는 晉에 출현했다가 唐에 이르러서 거의 사라진 놀이이다. - 신원봉 : 윷경, 정신세계사, 2002, pp.23-28.

123) 파톨리(patolli)라는 용어 자체가 아즈텍 언어로 '납작한 콩'이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의 윷놀이가 가락윷, 밤윷, 콩윷의 세 종류가 전해 내려오는 것과 같다. - 上揭書 : pp.28-36.

124) 崔南善 : 六堂崔南善全集10卷, 역락, 2003, p388.

125) 장지연 : 萬國事物起源歷史, 亞細亞文化史, 1978, pp.224-225.

126) ≪桓檀古記≫는 그 內容의 眞僞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참고하였다. - 임승국 :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1995, p.198.

127) 著者는 이 글에서 柶라는 用語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 이일영 : 윷의 由來와 名稱에 등에 관한 考察, 한국학

서 윷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윷을 만든 사람은 道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서 乾坤이 정해진다. 星辰은 궤도가 있어 경도와 위도가 만들어진다. 태양은 度가 있어 밤낮이 나뉘어 진다. 비록 하늘이 지극히 높고 星辰이 지극히 멀어도 璣衡의 圖와 渾天의 儀로 반드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니, 후에 간편하고 쉽게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윷놀이이다. 윷판의 바깥은 둥글어서 하늘을 상징하고 안쪽은 모가 져서 땅을 상징하는데 즉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가운데에 있는 별은 北極星이고 주위에 둘러져 있는 것은 28宿다. 즉 北辰이 머물고 있는 곳에 뭇 별들이 北辰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128][129].

그림27. 윷판.

또 윷놀이 할 때 말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절의 의미를 두었다.

> 태양이 水(北方)에서 木(東方)으로 들어가 다음에 土(中央)로 간 뒤 다시 水(北方)으로 돌아 나오는 것은 冬至에 해의 길이가 짧은 것을 나타낸다. 水(北方)에서 木(東方)으로 들어가 金(西方)으로 가로질러서 다시 水(北方)로 나오는 것은 春分에 해의 길이가 중간인 것을 나타낸다. 水(北方)에서 木(東方)을 거쳐서 火(南方)로 들어간 뒤 곧바로 水(北方)로 나오는 것은 秋分에 밤의 길이가 중간인 것을 나타낸다. 水(北方)에서 木(東方)을 거쳐서 火(南方)를 거쳐서 金(西方)을 거쳐서 다시 水(北方)로 나오는 것은 夏至에 해의 길이가 긴 것을 나타낸다[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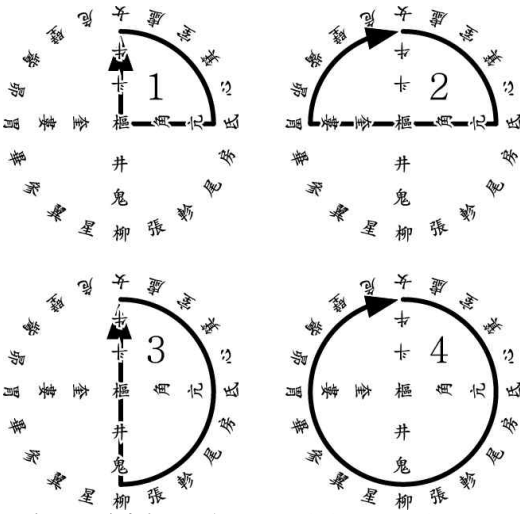


그림28. 그림에서 1은 冬至, 2는 春分, 3은 秋分, 4는 夏至를 나타낸다.

윷놀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 윷가락의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이고 아래가 모난 것은 땅이다. 한번 뒤집어지고 한번 다시 뒤집혀 하늘과 땅이 나뉜다. 윷가락을 네 개로 쓰는 이유는 땅의 數이기 때문이다. 도·개·걸·윷·모가 생기는 것은 五가 하늘의 數이기 때문이다. 四와 五가 서로 곱하여 五行이 움직이고 四時가 만들어진다. 말이 네모반듯한 것은 땅의 모습이다. 말이 네 개인 것은 陰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陰과 하나의 陽은 하늘의 道인데 陽이 아니면 생겨나지 않고 陰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 天道는 陽을 주관하나 陰 역시 없을 수는 없다. 땅의 道도 역시 같은데, 비유하자면 雙陸[131]의 주사위는

보(2), 1976, p.132.

128) 作栖者 其知道乎 天圓地方 乾坤定矣 星辰有躔 經緯立矣 日行有度 晝夜分矣 然天至高 星辰至遠 璣衡之圖 渾天之儀 必推測而後知 至簡而易見者 其惟栖乎 栖之外圓象天 內方象地 卽天抱地外也 星之居中者 樞星也 旁列者二十八宿也 卽北辰居所而衆星拱之者也. - 金 堉 : 松都志, 1648, p.97.

129) 이 문장은 본래 ≪論語·爲政 第二≫에 나오는 "爲政以德譬如北辰居所 而衆星拱之"를 인용한 것으로 '天子가 德으로 다스리면 그 고마움 때문에 저절로 백성들이 예를 갖추어 귀의한다'는 뜻인데, 맹웅재 교수는 拱辰丹(方藥合編 上統38)의 명칭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즉 '虛弱한 先天의 元氣를 좋게 하면 이로 인해 모든 질병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항간에 拱辰丹을 '공진단'이라고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辰'은 두 가지 讀音이 있는데 地支를 뜻할 때는 '진'으로 읽고, 時나 별(星)을 뜻할 때는 '신'으로 읽기 때문이다(몇 가지 예외는 있다). 그러므로 '日月星辰'은 '일월성진'이라 하지 않고 '일월성신'으로 읽으며, 또 북극성(北辰)을 말할 때는 '북신'으로 읽는다. 따라서 '拱辰丹'은 '공신단'으로 읽어야 정확한 漢字 讀音이라고 강조하였다.

130) 日行從水入木 次于土而還從水出者 冬至之日短也 從水入木經行至金而又從水出者 春分至日中也 從水歷木 入火直行而出于水者 秋分之宵中也 從水歷木歷火 歷金而又出于水者 夏至日永也. - 金 堉 : 松都志, 1648, p.97.

> 네모진 모양에다가 2개로 짝을 이루고 雙陸의 말은 긴 원뿔모양으로 밑이 동그랗고 길쭉하다. 즉 하나의 物件에도 지극한 이치가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132].

이렇듯 윷놀이의 방법은 28宿를 바탕으로 한 日月星辰의 曆數와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윷놀이는 28宿의 曆數를 이용하여 한해 人間事의 吉凶을 占쳤던 것으로, 28宿를 만들고 가장 가깝게 사용했던 韓民族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133].

2. 醫學과 28宿

1) ≪內經≫과 ≪類經≫에 引用된 28宿

(1) ≪素問·五運行大論≫에 引用된 28宿

≪素問≫이 著作된 시기는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다. ≪黃帝內經≫이라는 책 이름이 최초로 나타나 있는 文獻은 ≪漢書·藝文志≫이다. ≪漢書·藝文志·方技略·醫經部≫에 ≪內經十八卷≫, ≪外經三十七卷≫이라는 기록이 있는데[134] 이를 근거로 보아도 적어도 BC 2세기 末[135]에서 BC 1세기 末에는 ≪黃帝內經≫이라는 명칭의 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136]. 또한 王氷은 기타 古書에 근거하여 762年[137]에 〈運氣七篇〉을 ≪素問≫에 導入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運氣學說에 관한 것으로 다른 篇과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며, ≪難經≫, ≪甲乙經≫, ≪太素≫에도 인용되지 않았다. 또 運氣學說이 589年까지도 史書 등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王氷이 직접 지어 넣었다는 의심도 있다[138]. 이 외에 〈刺法論〉과 〈本病論〉이 있는데, 이 두 篇도 運氣에 대하여 論한 것으로 훗날 960年에서 1126年 사이 어떤 사람이 보충한 것이다[139]. 이러한 발전을 통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王氷의 ≪素問≫인 것이다. 즉 ≪素問≫의 대부분은 古代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運氣七篇〉만은 著作시기가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28宿가 ≪素問≫의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헌고찰을 해 보았다. 그 결과, ≪素問≫에서 28宿의 '宿名의 名稱'이 나타나는 곳은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외에는 없었다.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는 牛, 女, 心, 尾, 危, 室, 柳, 鬼, 亢, 氐, 昴, 畢, 張, 翼, 婁, 胃, 奎, 壁, 角, 軫의 20宿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140] 여기서는 주로 五天의 형성원리를 설명하면서 28宿의 구조를 중심으로 인용하였다. 훗날 많은 醫者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기에, 王氷도 이를≪內經≫에 編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외에도 天文과 28宿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범위를 확대하여 ≪素問≫과 ≪靈樞≫에서 모두 살펴보기로 하였다. 天文과 관련이 있는 字 중에서 '星', '天文', '二十八宿', '二十八', '宿' 字가 사용된 곳을 살펴보았다. '天'은 너무 광범위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星'[141]이라는 名稱이 ≪黃帝內經≫의 11

---

131) 백제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로 사대부 여성들에 의해 행해졌던 실내놀이 기구다. 투자(骰子)라고 불렀던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나온 수에 따라, 체스와 닮은 말을 각각 16개씩 가지고 움직여 자기 앞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금 안으로 먼저 집결시키는 쪽이 이기는 놀이다. 이 쌍육판은 직사각형이고 사방의 운두가 높아 엿모판 같이 단단한 나무판으로 만들었는데 말판으로 이용한다. - 도유호 : 북한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99, pp.231-236.

132) 柄之上圓者天也 下方者地也 一覆一反天地判焉 用四者 地之數也 行五者 天之數也 四五相乘而 五行行焉 四時成焉 馬之直方者 地之體也 行之以四者 陰之用也 一陰一陽 天之道也 非陽不生 非陰不成 天道主陽而陰亦不能無者 地道亦 然猶雙陸之榻 兒方而偶 馬 兒圓而奇 卽一物而至理存焉者此也. - 金 堉 : 松都志, 1648, p.98.

133) 著者는 윷점에는 126개의 占辭가 만들어지는데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占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四庫全書≫와 ≪道藏≫등에 실린 ≪靈棋經≫을 여러 가지 根據를 들어 古朝鮮의 윷경으로 정의하였다. 즉 古朝鮮의 윷경이 中國쪽으로 들어가 採錄된 것으로 보았다. 古代의 기록들을 보면 ≪靈棋經≫을 採錄해 보관한 이유로 매우 靈驗함을 들고 있는데 ≪郡齋讀書志≫에서도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책으로 기록하였다고 著者는 밝히고 있다. - 신원봉 : 윷경, 정신세계사, 2002, pp.16-21, pp.63-64.

134) 顧實 : 漢書藝文志講疏, 商務印書館, 1927, p.245.

135) 또한 사마천은 ≪史記·倉公列傳≫에서 西漢 初年의 名醫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 陽慶이 그에게 전수해준 열 가지 醫書를 받을 때, ≪黃帝內經≫이 없었던 것을 기술하였는데, 이 역시 ≪黃帝內經≫이 BC 2세기 末 이전에 출판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p.14-17.

136) 上揭書 : p.12.

137) 김기욱 박현국 :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注本을 通한 運氣學說 關한 硏究,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4권, 1995, p.112.

138) 홍원식 윤창렬 :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2001, p.244.

139) 홍원식 :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p.40-41.

140) 岐伯曰 昭乎哉, 問也!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黔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氐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戊己分者, 奎壁角軫, 則天地之門戶也.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素問), 成輔社, 1980, p.501.

141) '星'이라는 字는 〈上古天眞論篇 第一〉, 〈金匱眞言論篇 第四〉, 〈三部九候論篇 第二十〉, 〈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 〈鍼解篇 第五十四〉,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 〈著至敎論篇 第七十五〉, 〈邪客 第七十一〉, 〈衛氣行 第七十六〉, 〈九鍼論 第七十八〉 의 11篇에서 나타난다. 이 중 運氣七篇에서는 2篇에 나타난다.

篇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天文'[142]이라는 명칭은 단 3篇, '二十八宿'라는 명칭은 단 1篇에만 나타나고 있다. 또 二十八宿의 宿名이 후대에 만들어진 〈運氣七篇〉에서 가장 자세히 나타나고 응용되는 것으로 보아 古代 醫學에서 천문학을 導入한 것은 曆法의 발달로 비교적 정확한 천문측정이 가능해진 이후로 생각된다.

또 ≪黃帝內經≫에서 '二十八宿'라는 명칭이 정확히 나타나는 곳은 ≪靈樞·五十營 第十五≫[143] 한 곳 뿐이며 ≪靈樞·玉版 第六十≫[144]에서는 "經脈二十八會"이라는 글만 나타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모두 28宿의 度數와 12經脈 運行의 연관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五十營 第十五〉에서는 28宿와 인체의 28經脈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하루를 100刻으로 하여 28經脈의 一周 속도를 계산하고 있다.

또 '二十八'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곳은 ≪素問·氣府論篇 第五十九≫의 "督脈氣所發者 二十八穴"과 "任脈之氣所發者 二十八穴"이라는 글인데 이는 督脈과 任脈의 穴數가 28宿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 '宿'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곳은 ≪素問·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145]에서 "天有宿度"라는 글과 ≪素問·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146]의 "宿屬有勝負" 라는 글이 있으며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의 "常以日之加於宿上也"라는 글과 ≪靈樞·癰疽 第八十一≫[147]의 "上應星宿"이라는 글 네 곳 뿐이다.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표6과 같다.

名稱	素問	運氣七篇	靈樞
星 (11回)	〈上古天眞論篇 第一〉〈金匱眞言論篇 第四〉〈三部九候論篇 第二十〉〈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鍼解篇 第五十四〉 〈著至敎論篇 第七十五〉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	〈邪客 第七十一〉〈衛氣行 第七十六〉〈九鍼論 第七十八〉
天文 (3回)	〈著至敎論篇 第七十五〉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	〈玉版第六十〉
二十八宿 (1回)			〈五十營 第十五〉
二十八 (2回)			〈玉版 第六十〉〈氣府論篇 第五十九〉
宿 (4回)	〈離合眞邪論篇第二十七〉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	〈衛氣行 第七十六〉〈癰疽 第八十一〉
宿의 名稱 (2回)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	〈衛氣行 第七十六〉

표6. ≪素問≫과 ≪靈樞≫에 나타난 "星"과 "天文"과 "二十八宿"의 분포를 정리함.

142) '天文'이라는 명칭은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 〈著至敎論篇 第七十五〉, 〈玉版第六十〉 3篇에 나타난다.

143) 岐伯答曰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 日行五宿二十分.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于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182.

144) 上揭書 : p.424.
黃帝曰 夫子之言鍼甚駿, 以配天地, 上數天文, 下度地紀, 內別五藏, 外次六府, 經脈二十八會, 盡有周紀, 能殺生人, 不能起死者, 子能反之乎?

145) 岐伯對曰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素問), 成輔社, 1980, p.228.

146) 岐伯曰 亦各從其化也. 故時至有盛衰, 凌犯有逆順, 留守有多少, 形見有善惡, 宿屬有勝負, 徵應有吉凶矣. - 上揭書 : p.546.

147) 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 寒邪客於經絡之中, 則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 故癰腫.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613.

위의 圖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素問≫의 著作 시기와 28宿의 導入 시기이다. ≪素問≫의 내용을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陰陽五行을 설명하지 않은 초기의 것은 BC 4세기의 것으로 보고 陰陽五行을 설명한 것은 BC 3세기 중엽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靈蘭秘典論篇 第八〉의 경우는 3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148].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 하듯 '星'과 '天文'이 나타난 곳은 대체로 〈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을 제외한 BC 3세기 중엽에 著作된 것으로 보이는 6編에 나타난다. 또 '宿'이 나타난 곳은 〈離合眞邪論篇 第二十七〉외에 전부 〈運氣七篇〉에 나타나 있다. 특히 〈運氣七篇〉에 '星'과 '天文'과 '宿'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볼 때 ≪素問≫에 天文理論이 처음 導入되었을 당시에는 소박한 의미의 '天文'이나 '星'의 개념을 응용하였고, 후대 曆法이 발달과 더불어 〈運氣七篇〉이 著作되면서 더 복잡한 '二十八宿'의 이론이 導入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圖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素問≫과 ≪靈樞≫와의 관계다. ≪靈樞≫는 적어도 BC 3세기에는 존재하고 있었고 1세기까지 여러 사람에 의해 씌어진 著作이며[149], 한동안 遺失되었다가 11세기(1093年)에야 비로소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150] 하는데, 현재 전해오는 것은 史崧의 ≪靈樞≫[151]이다. 즉, ≪靈樞≫는 ≪素問≫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著作되었는데, 이 시대에는 '星'과 '天文'과 '宿'의 개념이 ≪靈樞≫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導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8宿는 초기 著作된 ≪素問≫에는 많이 導入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星'과 '天文' 등의 개념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훗날 〈運氣七篇〉에 '二十八宿'가 運氣學說의 기초이론으로 導入되면서 11세기 이후에는 五運六氣學이 醫史學的으로도 가장 盛行하게 되었고 할 수 있다[152].

148)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35.

149) 이용범 : ≪靈樞≫의 서지학적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12-2, 1999, p.279.

150) 현재 전해오는 ≪靈樞≫는 宋 哲宗 元祐 8年(1093年) 高麗에서 전해준 ≪針經≫9권을 史崧이 24권으로 만들면서 ≪靈樞≫로 이름을 고친 것이다. -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p.45-47.

151) ≪靈樞≫는 ≪難經≫과 ≪甲乙經≫ 時代(256年-259年)에는 存在하고 있었고, 唐·宋 이후에 完成된 것이라는 것이 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上揭書 : p.40.

152) 훗날 1099年에 劉溫舒가 ≪素問論奧≫를 著述하였는데 宋의 朝廷에 上呈되어 많은 사람들이 五運六氣學說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王安石의 變法 이후 運氣學은 太醫局에서 醫師를 뽑는 試驗科目의 하나가 되었다. - 홍원식 :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2001, pp.244-245.

(2) ≪類經·經絡類≫와 ≪類經·運氣類≫에 引用된 28宿

17세기는 그간 발전한 醫學理論들이 격렬한 論爭과 臨床을 통해 점차 하나로 통일되어 비교적 系統的이고 完備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 또한 思想的으로는 明理學의 영향을 받아 尊經衛道의 復古主義 경향이 매우 심하였다. 또한 醫家들은 자기주장을 펼 때 經典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기였다[153]. ≪類經≫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624年 著述되었다. 그런데 ≪類經≫의 분류법은 매우 독창적이어서, 이후 ≪黃帝內經≫에 관한 많은 종류의 서적이 출간되었지만 모두 ≪類經≫을 표절한 것일 뿐이었다[154]. 따라서 ≪類經≫은 17세기를 대표하는 ≪黃帝內經≫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運氣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割當하였는데 아마도 〈運氣七篇〉의 내용과 분량이 많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도 여러 부분에서 28宿를 인용하여 ≪黃帝內經≫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類經≫에서 28宿을 인용하여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상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攝生類〉에서는 聖人과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인용하였으며[155], 〈陰陽類〉에서는 天文과 人體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156].

그 다음에는 經脈學說에 많이 인용되었다. 우선 〈經絡類〉에서는 營氣와 衛氣의 흐름[157]과 시간[158], 특히 28宿의 運行과의 관계[159]를 밤낮으로 구별하면서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 또한 經脈의 生理[160]과 길이와 呼吸도 28宿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161]. 또 疾病[162]과 針

153) 홍원식 :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237.

154)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50.

155) ≪類經·一卷·攝生類·古有眞人至人聖人賢人≫의 "辨列星辰"에 인용됨. - 張介賓 : 類經上, 대성문화사, 1989, p.31.

156) ≪類經·二卷·陰陽類·天精地形氣通於人≫의 "故天有精地有形 天有八紀 地有五里"에 인용됨. - 上揭書 : p.41.

157) ≪類經·八卷·經絡類·營衛三焦≫의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에 인용됨. - 上揭書 : p.194.

158) ≪類經·八卷·經絡類·衛氣運行之次≫의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 是故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 陽主晝 陰主夜"에 인용됨. - 上揭書 : p.197.

159) ≪類經·八卷·經絡類·衛氣運行之次≫의 "是故日行一舍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 "迴行一舍 水下三刻與七分刻之四", "大要曰常以日之加於宿上也 人氣在太陽 是故日行一舍人氣行三陽行與陰分 常如是無已 天與地同紀"에 인용됨. - 上揭書 : pp.198-200.

160) ≪類經·九卷·經絡類·十二經水陰陽刺灸之度≫의 "手太陰外合於河水 內屬於肺"에 인용됨. - 上揭書 : p.214.

161) ≪類經·八卷·經絡類·一萬三千五百息五十營氣脈之數≫

刺[163]에 관계되는 부분도 28宿와 연관 지어서 설명하였다.

또 運氣學說에도 많이 인용되었다. 하늘[164]의 구조와 運行의 法則[165]을 설명하는데 인용하였고, 運氣의 太過不及[166][167][168]을 설명하면서 인용하였으며, 五星의 運行에 따른 吉凶[169]을 설명하면서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느 특정 편에 넣을 수 없는 文章을 〈會通類〉라 分類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脈色[170]과 經脈[171], 運氣[172] 등을 설명하면서 28宿를 인용하였다.

이 외에도 몇 군데에서 '宿'이란 글자를 찾아볼 수 있으나 모두 '宿疾'을 뜻하는 것이어서 제외하였다. 이들 條文을 圖表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8宿가 나타난 類經의 類篇	28宿의 引用回數
攝生類	1回
陰陽類	1回
經絡類	13回
疾病類	1回
鍼刺類	1回
運氣類	16回
會通類	5回

표7. ≪類經≫에 나타난 28宿를 정리한 것.

이를 내용상으로 다시 살펴보면 〈攝生類〉와 〈陰陽類〉에 나타난 내용은 天文과 運氣에 관한 내용이고, 〈鍼刺類〉와 〈疾病類〉는 經絡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 〈會通類〉에 나타난 5가지 내용은 明確히 나누기는 어려우나 經絡에 관한 것이 3곳, 運氣에 관한 것이 2곳으로 분류했다. 결국 ≪類經≫에서 28宿가 說明된 곳은 '經絡'에 관한 내용이 18回, '運氣'에 관한 내용이 20回로 要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8宿는 ≪黃帝內經≫의 經脈理論과 運氣學說을 理解하는데 반드시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2) 運氣學說과의 관계

(1) ≪素問·五運行大論≫의 "奎璧角軫 天地之門戶"

"奎璧角軫 天地之門戶"는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 引用된 것으로, 28宿의 宿名이 言及된 ≪素問≫의 唯一한 글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백이 말하기를 아주 크고 밝은 질문이십니다! 臣이 ≪太始天元冊文≫을 살펴보니 丹天의 氣는 牛宿와 女宿의 戊分을 지나고, 黃今天의 氣는

의 "黃帝曰 余願聞五十營奈何 岐伯答曰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二千七百息 氣行十周於身 下水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 "氣行十周 脈行一百六十二丈 日行當得五宿二十一分六釐爲正",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에 인용됨. - 上揭書 : p.201.

162) ≪類經·十八卷·疾病類·癰疽≫의 "岐伯曰 經脈流行不止與天同度 與地合紀 故天宿失度 日月薄蝕 地經失紀 水道流溢 草萱不成 五穀不殖 徑路不通 民不往來 巷聚邑居 則別離異處 血氣猶然 請言其故 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 寒邪客於經絡之中則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故癰腫"에 인용됨. - 張介賓 : 類經下, 대성문화사, 1989, p.406.

163) ≪類經·十九卷·鍼刺類·經脈應天地呼吸分補寫≫의 "余願聞邪氣之在經也 其病人何如 取之奈何 岐伯對曰 夫聖人之起度數 必應於天地 故天有宿度 地有經水 人有經脈"에 인용됨. - 上揭書 : p.440.

164) ≪類經·二十三卷·運氣類·六六九九以正天度而歲氣立≫의 "天度者 所以制日月之行也 氣數者 所以紀化生之用也", "行有分紀"에 인용됨. - 上揭書 : p.526.

165) ≪類經·二十三卷·運氣類·六六九九以正天度而歲氣立≫의 "周有道理", "立端於始", "表正於中"에 인용됨. - 上揭書 : p.527.

166) ≪類經·二十四卷·運氣類·五運太過不及 下應民病 上應五星 德化政令 災變異候≫의 "上應太白星", "上應辰星", "上應歲星", "上應熒惑星", "上應鎭星"에 인용됨. - 上揭書 : pp.557-558.

167) ≪類經·二十四卷·運氣類·五運太過不及 下應民病 上應五星 德化政令 災變異候≫의 "民病中淸胠脇痛 少腹痛 腸鳴溏泄 凉雨時至 上應太白星", "復則炎暑流火 濕性燥 柔脆草木焦槁下體再生 華實齊化病寒熱瘡瘍痈胗癰痤 上應熒惑太白其穀白堅"에 인용됨. - 上揭書 : p.560.

168) ≪類經·二十四卷·運氣類·五運太過不及 下應民病 上應五星 德化政令 災變異候≫의 "甚則屈不能伸 髖髀如別 上應熒惑辰星 其穀丹", "復則大風暴發 草偃木零 生長不鮮 面色時變 筋骨併辟 肉瞤瘈 目視眩眩 物疏璺 肌肉胗發 氣幷鬲中痛於心腹 黃氣迺損 其穀不登 上應歲星"에 인용됨. - 上揭書 : pp.561-562.

169) ≪類經·二十四卷·運氣類·五星之應≫의 "小常之一其化減 小常之二 是謂臨視 省下之過與其德也 德者福之 過者伐之", "帝曰 其災應何如 岐伯曰 亦各從其化也 故時至有盛衰凌犯有逆順 留守有多少 形見有善惡 宿屬有勝負 徵應有吉凶矣"에 인용됨. - 上揭書 : pp.566-567.

170) ≪類經·二十九卷·會通類·脈色≫의 "天周二十八宿 人經二十八脈 周身一十六丈二尺 故人一呼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脈終矣 凡行八百一十丈也 經絡二十六"에 인용됨. - 上揭書 : p.687.

171) ≪類經·二十九卷·會通類·經絡≫의 "天有宿度 地有經水人有經脈 天地溫和則經水安靜 天寒地凍則經水凝泣 天暑地熱則經水沸溢 卒風暴起則經水波涌而隴起"에 인용됨. - 上揭書 : p.693.

172) ≪類經·三十卷·會通類·運氣≫의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歲有十二月 日有十二辰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 房至畢爲陽 昴至尾爲陰 陽主晝 陰主夜", "日行一舍 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에 인용됨. - 上揭書 : p.720.

心宿와 尾宿의 己分을 지나며, 蒼天의 氣는 危宿와 室宿와 柳宿와 鬼宿를 지나고, 素天의 氣는 亢宿와 氐宿와 昴宿와 畢宿를 지나며, 玄天의 氣는 張宿와 翼宿와 婁宿와 胃宿를 지납니다. 戊와 己의 分이라고 하는 것은 奎宿、壁宿、角宿、軫宿를 말하는데 곧 天地之門戶입니다. 무릇 候가 시작하는 곳이고, 道가 生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173].

여기서 岐伯은 五運과 六氣의 陰陽配屬이 陰陽과 不合한다는 鬼臾區의 질문에 天地의 陰陽은 數로는 유추할 수 없으므로 象으로써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174] 위의 인용된 28宿와 五天[175]을 論하고 있다. 특히 "奎壁角軫"을 "天地의 門戶"라고 說明하면서 氣候가 시작되고 道가 生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學說은 ≪類經·運氣類≫[176]와 ≪類經圖翼·奎壁角軫 天地之門戶說≫에서도 잘 설명하였는데, 張介賓은 ≪類經·運氣類≫에서

"奎壁은 乾方인 戊分을 다스리고 角軫은 巽方인 巳分을 다스린다. 戊는 西北方에 있고 巳는 東南方에 있다. 遁甲經에 이르기를 六戊가 天門이 되고 六巳가 地戶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天地의 門戶라고 한 것이다[177]."

라고 하였다. 또 ≪類經圖翼·奎壁角軫 天地之門戶說≫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論하였는데

"太陽이 1年에 28宿를 一周하면서 季節의 變化가 생기는데 봄에 萬物을 내어놓고 가을에 萬物을 거두어 들어가기 때문에 열고 닫는 것이 바로 門戶라고 論하면서, 奎壁이 春分日이 되어 太陽이 陽道에 들어가기 때문에 天門이라 하고, 角軫이 秋分日이 되어 太陽이 陰道에 들어가기 때문에 地戶라 하였다[178]"

고 論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9와 같다.

그림29. ≪類經圖翼·運氣上·五天五運圖≫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28宿를 나열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제 天文과 맞지 않으므로 28宿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계방향으로 다시 그린 그림에 方位와 宿圖만 추가하였다.

그는 특히 天文에도 조예가 깊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論하였는데

"또 春分의 경우 太陽이 壁宿의 앞쪽에 있으므로 奎壁이라 한다. 秋分에는 太陽이 翼宿의 끝부분에 있는데 翼軫이라 하지 않고 왜 角軫이라 했을까? 대체로 角宿로부터 14宿(東方七宿와 南方七宿)는 173과 1/4度이고 奎宿로부터 14宿(西方七宿와 北方七宿)는 192度인데 28宿의 度數가 가지런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므로, 秋分이 翼宿의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內經≫에서는 角軫이라고 한 것이니, 바로 翼宿의 크기가 넓어서 그 度數가 다 끝나기도 전에 位置的으로 서로 겹친 부분이 많은 角宿와 軫宿가 바로 그 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奎壁과 角軫이 서로 마주보는 宿이고 奎壁은 西北이 만나는 곳이 되고, 角軫은 東南이 만나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는 '天地之門戶'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伏羲六十四卦方圖에서 乾을 西北에 놓고 坤을 東南에 놓았으니 곧 '天地之門戶'의 뜻과 부합된다[179]."

173) 앞 140번 註 참조.

174) 岐伯曰 是明道也, 此天地之陰陽也. 夫數之可數者, 人中之陰陽也, 然所合數之可得者也. 夫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天地陰陽者, 不以數推, 以象之謂也.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素問), 成輔社, 1980, p.501.

175) 五天은 하늘의 氣運을 말하는데, 다섯 기운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해당하는 五行의 氣運이 강할 때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氣運을 주관하게 된다. - 김수길 · 윤상철 공역 : 天文類抄, 대유학당, 1998, p.13.

176) 張介賓 : 類經下, 대성문화사, 1989, p.539.

177) 奎壁臨乾戊分也. 角軫臨巽巳分也. 戊在西北 巳在東北 遁甲經曰 六戊爲天門 六巳爲地戶 故曰 天地之門戶. - 上揭書 : p.539.

178) 張介賓 :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1989, p.27.

179) 又如春分日 躔壁初 故言奎壁 秋分日 躔翼末 何以不言翼軫而 言角軫 蓋自角以後十四宿 計一百七十三度四分度之一 自奎以後十四宿 計一百九十二度 度有不齊 此秋分之所以 在翼末而經言角軫者 正以翼度將完而 角軫正當其令 且 奎壁角軫爲對待之宿而 奎壁爲西北之交 角軫爲東南之交 故經云 奎壁角軫 天地之門戶也 是以 伏羲六十四卦方圖以 乾居西北 坤居東南 正合天門地戶之義. - 上揭書 : pp.27-28.

고 자신의 見解를 밝혔다.

위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 五天에 관한 文章이 著作된 시기에는 28宿를 통해 春分點, 秋分點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으며, 十干과 十二支와 八卦가 보편적으로 천문학에도 응용되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글은 당시 春分點과 秋分點의 위치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古代의 天文記錄은 관찰한 것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당시의 天體의 운동을 정확히 보여준다. 또한 天文記錄의 특징 중의 하나는 後代에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天體의 운동은 매우 규칙적이고 현재도 그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180]. 즉 〈奎壁角軫 天地之門戶說〉은 이미 古代로부터 春分點(vernal equinox point)과 秋分點(autumnal equinox point)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또한 春分日에는 太陽이 春分點의 위치에서 떠오르고, 秋分日에는 太陽이 秋分點의 위치에서 떠오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천문학 기록이다.

현재 春分點의 위치는 室宿와 壁宿의 사이에 있고 秋分點의 위치는 翼宿에 있다. 또한 春分日에는 太陽이 室宿와 壁宿의 사이에서 떠오르고, 秋分日에는 太陽이 翼宿中에 떠오른다. 따라서 2007年에는 室壁이 天門이 되고 翼이 地戶가 된다.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에 黃道와 黃道의 子午線이 교차하는 十字線의 中心은 春分點[181]과 秋分點[182]이고 中心의 검은 점은 太陽이다. 모두 동쪽하늘에서 아침에 太陽이 떠오르는 그림이다. 나머지 그림도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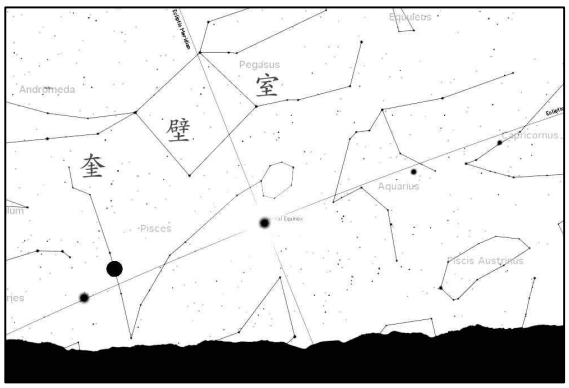


그림30. 2007年 春分日 아침의 春分點.
현재 春分點의 위치는 室과 壁의 中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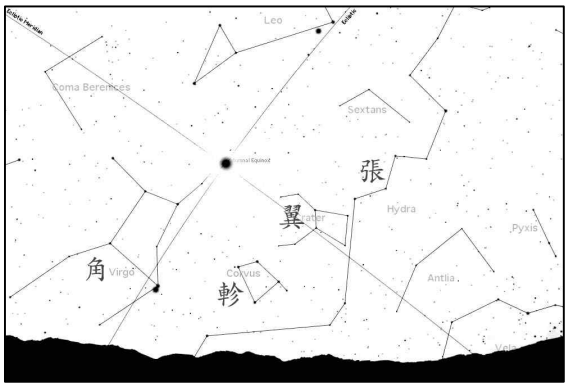


그림31. 2007年 秋分日 아침의 秋分點.

또 張介賓이 ≪類經≫을 著述할 당시 1600年[183]의 春分點 위치는 室宿와 壁宿의 사이에 있고 秋分點의 위치는 翼宿에 있었다. 또한 春分日에는 太陽이 室宿와 壁宿의 사이에서 떠오르고, 秋分日에는 太陽이 翼宿中에 떠오른다. 따라서 1600年에도 室壁이 天門이 되고 翼이 地戶가 된다. 그러나 아래 그림을 보면 春分點과 秋分點이 400年間의 歲差運動으로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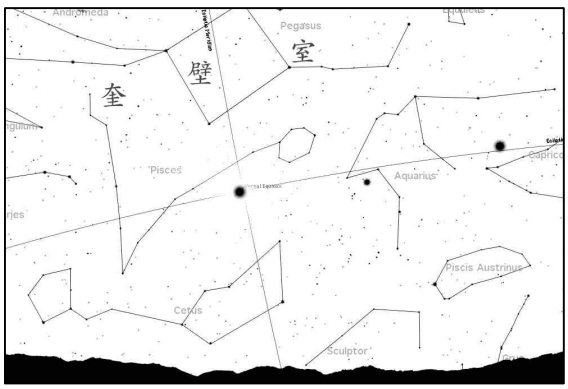


그림32. 1600年 春分日 아침의 春分點.

180) 모든 천문현상에는 반드시 시간개념이 담겨 있다. 따라서 천문 현상을 활용하면 그 현상이 일어난 과거 역사적 시점을 절대적 산출법으로 정확히 추적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가능해진 것은 방대한 컴퓨터계산이 가능해진 아주 최근에야 실현된 일이다. - 박창범 :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pp.20-21.

181) 그림30, 32, 34, 36.

182) 그림31, 33, 35, 37.

183) 현재 사용되는 그레고리曆을 기준함.

184) 이를 日月歲差(Luni-solar precession)라고 하며 태양이나 달의 작용으로 하늘의 赤道가 이동하고, 그 때문에 春分點도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春分點이 천구를 일주하는 주기는 25,700年이며, 방향은 黃道 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이동한다. - 천문학 작은사전, 가람기획, 2002, p.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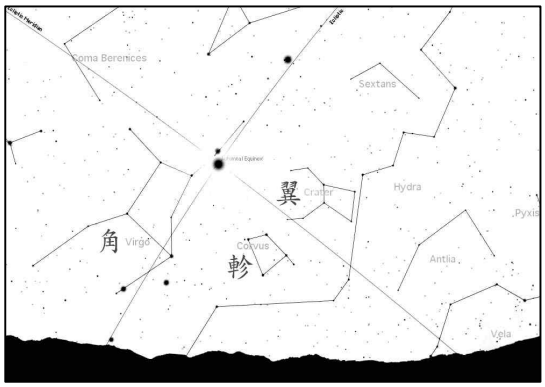


그림33. 1600年 秋分日 아침의 秋分點.

그리고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 나타난 "奎壁 角軫"은 어느 시대인지 위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春分點이 奎宿와 壁宿사이에 있는 시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만족하는 시기는 대략 550年에서 930年사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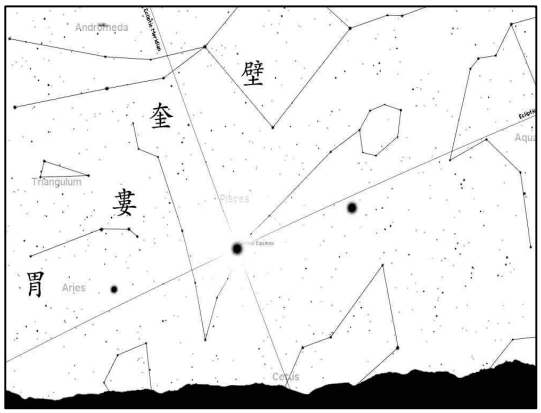


그림34. 550年 春分日 아침의 春分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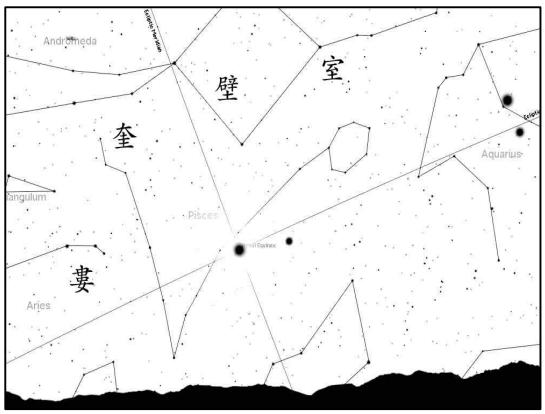


그림35. 930年 春分日 아침의 春分點.

다음에 秋分點이 軫宿와 角宿사이에 있는 시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만족하는 시기는 대략 430年에서 720年사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秋分點이 軫宿와 角宿 둘 중 어떤 곳에도 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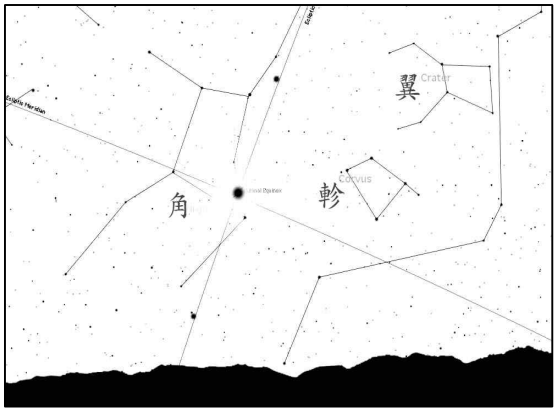


그림36. 430年 秋分日 아침의 秋分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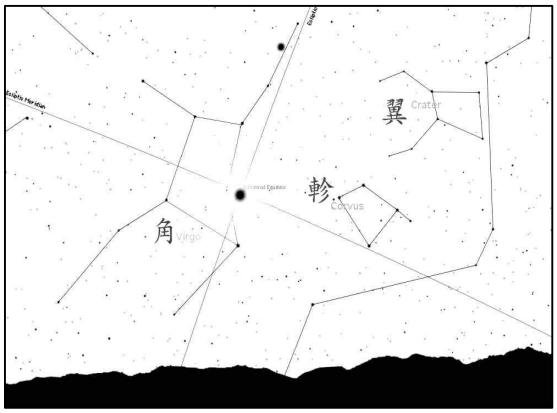


그림37. 720年 秋分日 아침의 秋分點.

결국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기는 매우 좁아져서 약 550年에서 720年사이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 나오는 ≪太始天元冊文≫[185]이 약 550年에서 720年사이의 天文을 관측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 ≪太始天元冊文≫을 인용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약 550年 이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王氷은 762年에 〈運氣七篇〉을 導入하였는데, 이는 위 천문학적 결과와 附合되며, 이 學說이 589年까지 史書에 기록이 없는 것도 위 결과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太始天元冊文≫을 인용한 시기를 최소한으로 한다면 589年에서 762年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 그 시기를 볼 때 王氷이 직접 지어 넣었다는 疑心도 있는데, 王氷이 序文에서 "時於先生郭

185) 저자는 이 책을 後期 ≪黃帝內經≫에 인용된 고대서적으로 분류했다. -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129.

子齊當, 受得先師張公秘本”이라고 하였으며, 自身이 쓴 글과 ≪素問≫의 原文을 엄격하게 區分한 王氷의 學問的 態度로 볼 때 경솔하게 經文을 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186].

또한 ≪黃帝內經≫에 인용된 ≪太始天元冊文≫이라는 책은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과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의 2篇에서만 나오는데, 적어도 ≪太始天元冊文≫은 약 550年에서 720年 사이의 春分點과 秋分點의 기록을 보고 지어진 책이므로, 따라서 〈天元紀大論篇 第六十六〉과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의 2篇은 ≪太始天元冊文≫이 나온 후 지어지거나 編輯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運氣七篇〉의 文體가 古代의 文體나 518年 이후의 文體와도 닮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87].

⑵ ≪類經圖翼≫에 나타난 28宿 圖表

≪類經圖翼≫은 1624年에 간행된 책으로, 張介賓이 序文에서도 밝혔듯이 글로써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그림으로 깊은 뜻을 알도록 만든 책이다[188]. 그 構成을 살펴보면 크게 〈運氣上〉, 〈運氣下〉, 〈經絡一〉에서 〈經絡八〉, 〈鍼灸要覽〉[189]등으로 되어있고, 내용면으로 볼 때 陰陽五行篇과 天文篇과 五運六氣篇과 經絡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素問≫과 ≪靈樞≫를 이해하기 쉽게 圖式化한 것이다. 이 중 天文篇에 해당하는 〈運氣上〉에서 28宿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類經圖翼≫에 나와 있는 28宿圖의 특징은 모두 반시계방향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는 28宿의 실제방향이 시계방향(즉 남쪽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것에 相反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天干地支의 五行方位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28宿를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그림38. ≪天象列次分野地圖≫의 略圖. 28宿의 方向과 方位가 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하늘을 관찰한 모습 그대로 그린 것이다. 12支는 28宿를 기준하여 반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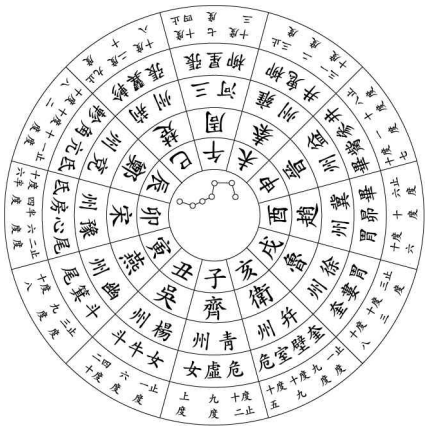


그림39. ≪類經圖翼·二十八宿過宮分野圖≫. 28宿의 方向과 方位가 12支를 기준하여 반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있다. 12支는 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北斗七星의 모습도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되어있다.

특히 歲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12支는 歲를 나타내고, 月을 나타내고, 時間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6세기에 著述된 ≪五行大義≫[190]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8宿도 이미 ≪五行大義≫[191]에서 五行에 配屬되었는데, ≪類經圖翼≫에서도 이 學說을 따라 28宿 各各을 五行에 配屬시켰다. 또 〈二十四氣晝夜長短百刻之圖〉와 〈四季日纏宿度晝夜長短刻數〉[192]에서는 各各 節氣의 낮과 밤의 길이를 “時”와 “刻”의 단위를 써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各 節氣때 太陽이 머무는 宿의 위치를 표시하였다[193].

186) 김기욱 박현국 :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注本을 通한 運氣學說 關한 硏究,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4권, 1995, p.114.
187)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38.
188) 홍원식 윤창열 편저 :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p.368.
189) 張介賓 :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1989, pp.3-9.
190) 김수길 윤상철 공역 : 五行大義, 大有學堂, 1998, p.12.
191) 上揭書 : pp.393-401.
192) 張介賓 :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9, p.21.
193) 冬至 十一月中 日纏箕四度 出辰初初刻 入申正四刻 晝長四十一刻 夜長五十九刻. - 上揭書 : p.21.

이렇게 24節氣를 모두 소개한 뒤에야 28宿에 대해 論하였는데, 〈十二次會中星圖〉와 〈二十八宿過宮分野圖〉[194]를 표시하고 〈十二辰次六合解〉[195]와 〈二十八宿過宮歌〉[196]를 통해 圖表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 〈二十八宿說〉[197]과 〈中星歲差考〉[198]를 論하였고, 〈奎壁角軫天地之門戶說〉[199]을 論하였다. 마지막으로 〈二十八宿五行所屬圖〉[200]와 〈五天五運圖〉[201]를 표시하고 〈五天五運圖解〉[202]를 論하였다. 이러한 설명 뒤에야 비로소 五運六氣와 三陽三陰의 太過不及에 관해서 論하였는데, 이를 볼 때 張介賓은 五運六氣學을 이해하는데 天文學의 基礎를 매우 중요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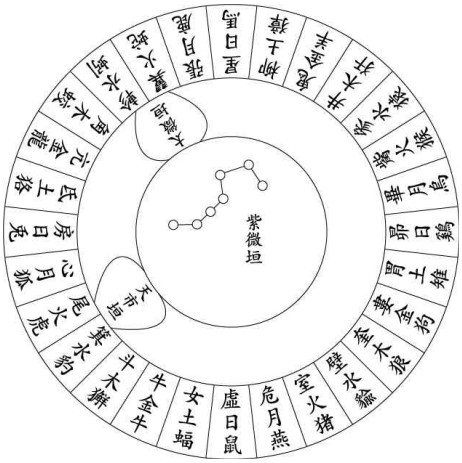


그림40. ≪類經圖翼・二十八宿五行所屬圖≫. 28宿에 해당하는 五行과 禽蟲을 配屬하였다. 28宿의 方向은 실제와 反對方向이다.

또, 전체적으로 보아 ≪類經圖翼≫에서는 28宿보다는 24節氣, 72候와 氣數[203]에 관한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학문적 발전은 1477年 西域의 曆法을 받아들여 28宿 대신 12宮을 채택한 ≪七政推步≫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시대적 變化와[204], 16세기 말 刑雲路가 1年의 길이를 365.242190일이라는 값을 얻을 만큼 발전된 天文學의 뒷받침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 이 시기는 西洋에서 온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레고리曆과 유럽의 天文學이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다[205]. 이렇듯 28宿는 經脈學說과 運氣學說의 基礎가 되었으나, 曆法의 발달로 主要한 醫書에서 점차 사라지고 24節氣가 28宿를 대신하게 되었다.

3) 經脈學說과의 관계

(1) ≪類經·經絡類≫와 28宿의 曆數

≪類經·經絡類≫는 ≪黃帝內經≫에서 설명된 經脈의 構造와 配屬, 離合, 筋結, 別絡, 診斷, 經穴, 標本, 五腧穴, 原穴, 脈度, 骨度, 營氣, 衛氣, 三焦, 診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류하여 서술한 篇으로써, ≪黃帝內經≫의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 중 營氣와 衛氣에 관한 條文들은 ≪靈樞·五十營 第十五≫와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주로 28宿와 經脈과의 관계를 曆數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이 "奎壁角軫 天地之門戶說"을 인용하여 五天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라면 ≪靈樞·五十營 第十五≫와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은 28宿를 引用하여 衛氣의 운행시간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本文 중에 '宿'를 의미하는 '舍'라는 명칭도 있는데[206] 이는 ≪史記·天官書≫에 나오는 명칭으로 張介賓도 ≪類經≫에서 ≪史記≫를 언급하였다[207]. 즉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은 빨라야 28宿가 모두 나타난 ≪禮記≫(BC 206年) 이후의 著作으로 추측할 수 있다[208]. 또 최근 출토된 馬王堆 3號 漢墓(BC

194) 上揭書 : p.23.
195) <十二辰次六合解>를 통해 계절마다 해와 달이 머무르는 宿를 說明하였다. - 上揭書 : p.26.
196) <二十八宿過宮歌>를 통해 12宮에 해당하는 28宿를 암기하도록 하였다. - 上揭書 : p.26.
197) <二十八宿說>을 통해 ≪史記≫에 소개된 28宿說을 引用하였다. - 上揭書 : pp.26-27.
198) "又堯時中星昏中 昴今則昏中近奎矣 古今不同如此始見 歲差有度也"라 하여, 歲差運動의 重要性을 論하였다. - 上揭書 : p.27.
199) 春分點과 秋分點을 통해 季節을 陰陽으로 구분하고, 春分點과 秋分點의 太陽位置에 따라 28宿의 陰陽을 區分하였다. - 上揭書 : pp.26-28.
200) 上揭書 : p.34.
201) 上揭書 : p.35.
202) 上揭書 : p.36.
203) <氣數統論>에 氣는 天地의 氣候이고 數는 天地의 定數인데 陰陽升降과 陰陽進退의 정확한 天地度數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 上揭書 : pp.28-33.
204) 앞 註釋 126번 참조.
205) E.G. 리처즈/이민아 옮김 : 시간의지도 : 달력, 까치, 2003, pp.206-207.
206) 是故日行一舍, 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 日行二舍, 人氣行三周於身與十分身之六. 日行三舍, 人氣行於身五周與十分身之四. 日行四舍, 人氣行於身七周與十分身之二. 日行五舍, 人氣行於身九周. 日行六舍, 人氣行於身十周與十分身之八. 日行七舍, 人氣行於身十二周在身與十分身之六. 日行十四舍, 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與十分身之二, 陽盡於陰, 陰受氣矣. 其始入於陰, 當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于腎爲周. 是故夜行一舍, 人氣行於陰藏一周與十分藏之八, 亦如陽行之二十五周, 而復合於目. 陰陽一日一夜, 合有奇分十分身之二, 與十分藏之二. 是故人之所以臥起之時有早晏者, 奇分不盡故也. …(中略)… 從房至畢一十四舍, 水下五十刻, 日行半度, 廻行一舍, 水下三刻與七分刻之四. 大要曰常以日之加於宿上也, 人氣在太陽. 是故日行一舍.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555.
207) 張介賓 : 類經上, 大成文化社, 1989, p.198.
208) ≪靈樞≫에서 陰陽五行을 論하는 것은 初期의 글로 BC 3

168年)에서는 ≪足臂十一脈灸經≫, ≪五十二病方≫, ≪十問≫등의 醫書가 14종 출토되었는데, 특히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泰陽, 少陽, 陽明, 眷陰, 泰陰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209]. 이러한 六氣의 초기 용어들은 결국 天文學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古代의 醫學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統一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훗날 經脈理論은 ≪靈樞≫에 통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古人들은 天度의 規則을 통해서 人體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類經·經絡類≫를 살펴보면 古人들이 經脈과 28宿의 相關關係에 대해서 일치점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宿는 經脈의 形成過程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素問·氣穴論篇 第五十八≫에서는 經穴과 絡脈[210]의 갯수를 365개로 정한 것에 대해 1年의 날짜와 일치시켰다고 하였다[211]. 또 ≪靈樞·五十營 第十五≫에서는 人體의 上下左右 經脈의 數가 28개인 것은 28宿와 對應하고 經脈의 길이가 162尺인 것은 28宿의 별자리 수에 對應한다고 하였다[212]. 이를 ≪靈樞·脈度 第十七≫에서 각 經脈別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 ≪靈樞·玉版 第六十≫에서는 鍼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經脈 28개와 會하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靈樞·五十營 第十五≫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28宿와 對應시킨 것으로 보인다[213].

28宿	經 脈
28개의 宿數	左右12經脈+任脈+督脈+陽蹻脈+陰蹻脈[214] = 28개 督脈의 穴數 = 28穴 任脈의 穴數 = 28穴
165개의 宿星	經脈의 길이[215]<脈度 第十七> = 162尺[216]

표8. 28宿와 經脈과의 關係를 정리한 표.

또 ≪素問·氣府論篇 第五十九≫에서 나타나는 古代 督脈과 任脈의 穴宿는 각각 28개였는데[217] 이러한 것도 28宿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經脈의 구조를 28宿와 대응시킨 것은 오로지 曆數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天度가 28宿를 기준하여 晝夜와 四時의 曆法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응용하여 營氣와 衛氣의 흐름도 28宿를 기준하여 계산하고 經脈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類經·經絡類≫에서도 衛氣와 營氣에 관한 내용이 ≪類經·經絡類·營衛三焦≫에 나와 있다. 여기서 營氣는 水穀의 精氣로 脈內를 돌고, 衛氣는 水穀의 悍氣로 脈外를 돈다고 하였다[218]. 營氣는 간략히 말하면 飮食物이 胃에 들어가 消化가 되어 營養分이 脈內를 따라 움직여서 온몸을 營養하는 것으로, 13500번의 숨과 함께 16丈2尺의 전체 經脈을 하루에 50바퀴 돌아 모두 810丈을 움직이게 된다. 이때의 흐름은 中焦에서 水穀의 淸한 것이 肺로 전달되는데, 寅時에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12經脈의 순서에 따라 순행하여 足厥陰肝經

세기에 만들어졌으며, ≪靈樞≫後期의 글 중 陰陽繫明篇은 BC 1세기에 만들어졌고, 九宮八風篇 과 歲露篇은 1세기의 글이다. - 龍伯堅 :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p.47.

209) 주일모 :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법인문화사, 2000, p.49.

210) <徵四失論篇 第七十八> 帝曰 子年少智未及邪, 將言以雜合耶? 夫經脈十二, 絡脈三百六十五.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素問), 成輔社, 1980, p.685.

211) 黃帝問曰 余聞氣穴三百六十五, 以應一歲, 未知其所, 願卒聞之. 岐伯曰 孫絡之脈別經者, 其血盛而當寫者, 亦三百六十五脈, 並注於絡, 傳注十二絡脈, 非獨十四絡脈也, 內解寫於中者十脈. - 上揭書 : p.409.

212) 人經脈上下 左右 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그런데 실제로 ≪天文類秒≫에 나타난 28宿의 별자리 수는 165개다.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182.

213) 黃帝曰 夫子之言鍼甚駭, 以配天地, 上數天文, 下度地紀, 內別五藏, 外次六府, 經脈二十八會, 盡有周紀, 能殺生人, 不能起死者, 子能反之乎? - 上揭書 : p.424.

214) 張介賓 : 類經上, 대성문화사, 1989, p.201.

215) 骨度法에 의하면 手太陰3.5尺+手少陰2.95尺+手厥陰3.3尺+足太陰6.85尺+足少陰6.34尺+足厥陰5.2尺+手陽明4.8尺+手太陽5.282尺+手少陽4.05尺+足陽明9.5尺+足太陽15.258尺+足少陽1.88尺+督脈5.1尺+任脈3.31尺인데 모두 합하면 155.23尺(73.42x2+5.1+3.31)이다. - 최용태 : 鍼灸學(上), 集文堂, 1998, pp.119-133.

216) <脈度 第十七>에 의하면 162尺이다. 岐伯答曰 手之六陽,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 中, 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 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 中, 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193.

217) 督脈氣所發者, 二十八穴: 項中央二, 髮際後中八, 面中三, 大椎以下至尻尾及傍十五穴, 至骶下凡二十一節, 脊椎法也. 任脈之氣所發者, 二十八穴: 喉中央二, 膺中骨陷中各一, 鳩尾下三寸胃脘五寸, 胃脘以下, 至橫骨六寸半一, 腹脈法也. 下陰別一, 目下各一, 下脣一, 斷交一.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素問), 成輔社, 1980, pp.434-435.

218) 穀氣出於胃而氣有淸濁之分 淸者水穀之精氣也 濁者水穀之悍氣也. 諸家以上下焦言淸濁者皆非 淸者屬陰 其性精專. 故化生血脈而調行於經隧之中 是爲營氣 濁者屬陽 其性慓疾滑利. 故不循經絡而直達肌表 充實於皮毛分肉之間 是爲衛氣. 然營氣衛氣 無非資籍於宗氣. 故宗氣盛則營衛和 宗氣衰則營衛弱矣. - 張介賓 : 類經上, 대성문화사, 1989, p.192.

의 大敦에서 肝에 이르러 肺로 연결되고, 다시 頏顙에 연결된 뒤 督脈에 연결되어 尾骶로 나와, 다시 任脈으로 연결되어 肺로 올라가, 다시 手太陰肺經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한번은 陽經을 한번은 陰經을 흘러가고 五臟과 四肢를 고르게 흐르는 특징이 있다. ≪類經·經絡類≫에서는 營氣의 曆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五十營이라는 것은 營氣運行의 數이다. 대체로 밤낮으로 50度를 돌게 된다. 이렇게 하늘에 28宿가 運行하고 宿는 36分씩 28개가 되므로, 人體의 營氣는 모두 1008分동안 밤낮으로 한 바퀴 돌게 된다. 또 太陽이 28宿를 움직이면, 사람의 經脈도 上下左右前後의 28脈을 한 바퀴 도는데 162尺의 길이를 100刻의 시간동안 운행한다. ……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숨을 내쉬면 脈이 두 번 뛰고 3寸을 흐르고, 한번 숨을 들이쉬면 脈이 역시 두 번 뛰고 3寸을 흐른다. 10번을 숨 쉬면 氣가 6尺을 가고 太陽은 2分을 간다[219].

이에 대해서는 歷代로 수많은 해석이 존재한다. 本文의 내용과 실제 天文의 曆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宿三十六分"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日行二十八宿", "日行五宿二十分"이란 문장들도 天文學的으로 볼 때, 28宿가 太陽보다 하루에 1度13分7厘8絲3忽(1.13783°)만큼 더 빨리 움직이므로[220] 실제 天文曆數와는 매우 다른 문장이다. 즉 위의 문장들은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히 쓴 것이 아니라, 營氣를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衛氣의 흐름은 營氣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다. 우선 衛氣는 脈外를 흐르는데 주로 皮膚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또 "水穀之悍氣"라는 것은 음식물 중에서 매우 빠른 氣運을 말하는데 ≪靈樞·經脈 第十≫에서 술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221]으로 보아 고추를 먹으면 맵고 더워지는 것, 냉수를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氣運은 飮食을 먹자마자 바로 나타나고 체온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衛氣는 晝夜를 다르게 흐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衛氣는 하루 동안에 몸을 50번 돌아간다. 낮에는 陽부위를 25번 돌고 밤에는 陰부위를 25번 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陰氣가 없어지고 陽氣가 눈으로 나온다. … (中略) … 이렇게 낮에 몸을 25번 돌고 나면 陽分으로 도는 것이 끝나고 밤이 되어 陰分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陰分으로 들어갈 때는 … (中略) … 역시 25번을 돌아서 낮이 되면 다시 눈으로 나와 營氣와 합하게 되는 것이다[222].

衛氣의 운행에 대해서도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서 역시 曆數를 서술했는데, 28宿를 이용하여 房宿에서 畢宿까지를 陽에 배속하여 낮을 주관한다고 하였고, 昴宿에서 心宿까지를 陰에 배속하여 밤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天度가 1일에 거의 361度를 움직이고 밤하늘의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뀌기 때문에, 28宿가 하루의 晝夜와 陰陽을 주관하기 보다는 1年의 春夏秋冬의 陰陽을 주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衛氣의 운행에 대해서 밤낮으로 다르게 설명하였다.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서는 해를 기준으로 해가 14舍를 운행하는 동안 낮에 衛氣가 25회 운행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따라서 太陽이 1舍를 움직일 때 사람의 衛氣는 1.8회를 돌고, 太陽이 2舍를 움직일 때 사람의 衛氣는 3.6회를 돈다. … (中略) … 太陽이 14舍를 움직일 때 사람의 衛氣는 25.2회를 도는데 陽部位를 마치고 陰으로 들어가게 된다[223].

위의 내용 또한 실제 天文現象과는 맞지 않는다. 우선 28宿가 규칙적으로 놓이지 않아서 度數가 일정하지 않으며, 만약 360度를 고르게 28宿로 나눈다고 하여도 각 舍마다의 간격이 12.857度의 거리가 생겨서 太陽이 실제로 1舍를 움직이는 것은 28日정도가 걸린다. 따라

---

219) 五十營者卽營氣運行之數 晝夜凡五十度也. 以周天二十八宿宿三十六分相因 共得一千零八分 人之脈氣 晝夜運行一周 亦合此數 二十八宿義見前章 人之經脈十二 左右相同 則爲二十四脈 加以蹻脈二 任督脈二 共爲二十八脈 以應周天二十八宿以分晝夜之百刻也. 二十八脈及十六丈二尺詳義見前十七 人之宗氣積於胸中 以行呼吸而通經脈 凡一呼一吸是爲一息 脈氣行六寸 十息氣行六尺 其日行之數 當以每日千八分之數爲實 以一萬三千五百息爲法除之 則每十息日行止七釐四毫六絲六忽不盡 此云日行二分者 傳久之誤也. 下放此 呼吸脈再動 詳脈色類三 所當互考. - 上揭書 : p.201.

220) 張介賓 :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1989, p.195.

221) 飮酒者 衛氣先行皮膚 先充絡脈 絡脈先盛. 故衛氣已平 營氣乃滿 而經脈大盛. 衛氣者 水穀之悍氣也. 其氣慓疾滑利 不入於經 酒亦水穀之悍氣 其慓疾之性亦然. 故飮酒者 必隨衛氣先達皮膚 先充絡脈 絡脈先盛 則衛氣已平 而後營氣滿 經脈乃盛矣 平 猶潮平也. 卽盛滿之謂.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靈樞), 成輔社, 1980, p.138.

222) 上揭書 : pp.197-198.

223) 是故日行一舍, 人氣行一周與十分身之八. 日行二舍, 人氣行三周於身與十分身之六. 日行三舍, 人氣行於身五周與十分身之四. 日行四舍, 人氣行於身七周與十分身之二. 日行五舍, 人氣行於身九周. 日行六舍, 人氣行於身十周與十分身之八. 日行七舍, 人氣行於身十二周在身與十分身之六. 日行十四舍, 人氣二十五周於身有奇分與十分身之二, 陽盡於陰, 陰受氣矣.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p.555.

서 위의 문장에서 太陽이 하루에 14舍(179.998度)를 도는데 衛氣의 운행 횟수 25.2로 나누면 7.12478度가 되므로 여기서 1舍의 거리는 12.8246度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에서 舍의 의미는 천문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서 針治療에 있어서 陽經의 病은 衛氣가 陽分에 있을 때 치료하고, 陰經의 病은 衛氣가 陰分에 있을 때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물시계를 기준으로 50刻 동안 衛氣가 밤에 25회 운행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刻이 되었을 때 사람의 衛氣는 太陽에 있다. 2刻이 되었을 때 사람의 衛氣는 少陽에 있다. 3刻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衛氣는 陽明에 있다. 4刻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衛氣는 陰分에 있다. … (中略) … 24刻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衛氣는 陰分에 있다. 25刻이 되었을 때는 사람의 衛氣는 太陽에 있다[224].

이러한 설명은 ≪類經·經絡類≫에서도 많은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의 理論은 天文學的 計算으로 오류를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그 자체를 철학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文脈으로 보아 舍를 이용한 운행은 낮에 衛氣가 陽分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水를 이용하여 운행을 설명한 것은 밤에 衛氣가 陰分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太陽의 움직임에 따른 經脈의 運行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⑵ ≪靈樞·衛氣行≫의 "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서는 房, 昴, 虛, 張, 房, 畢, 昴, 心의 8宿의 명칭이 나와 있다[225]. 특히 "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라고 하여 28宿를 陰陽으로 구분하여 房宿에서 畢宿까지를 陽에 배속하여 '낮'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며, 昴宿에서 心宿까지를 陰에 배속하여 '밤'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28宿로는 밤낮을 구분할 수는 없다. 28宿는 1年을 단위로 하늘을 一周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계절을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문의 晝夜에 대한 내용은 28宿의 陰陽을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또 "房昴爲緯 虛張爲經"란 문장도 28宿의 方位를 통해 계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類經·經絡類·衛氣運行之次≫에서도 밝혔듯이[226] 緯라는 것은 天體에 東西로 그어진 線을 말하고 經이라는 것은 天體에 南北로 그어진 線을 말하는데, 여기서 東西는 봄과 가을을 상징하고 南北은 여름과 겨울을 상징한다. 즉 이 글을 쓴 시대의 春分點과 秋分點, 冬至點, 夏至點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에 대해서 ≪類經·經絡類·衛氣運行之次≫에서도 "自房至畢 其位在卯辰巳午未申 故屬陽而主晝 自昴至尾 其位在酉戌亥子丑寅 故屬陰而主夜"[227]라고 註釋을 해 놓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천문학적으로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房昴爲緯 虛張爲經"는 이 시대의 春分點과 秋分點, 冬至點, 夏至點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房宿는 秋分點이 되고 昴宿는 春分點이 되며, 張宿는 夏至點이 되고, 虛宿는 冬至點이 된다. 따라서 太陽은 夏至때에 夏至點에 있게 되고 冬至때에는 冬至點에 있게 되며, 春分日에는 春分點에 있게 되고, 秋分日에는 秋分點에 있게 된다. 따라서 "房至畢爲陽"이라 한 것은 房宿와 畢宿사이에 張宿가 있으므로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太陽이 머물게 된다. 따라서 陽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 "昴至心爲陰"이라고 하였는데 昴宿와 心宿사이에 虛宿가 있으므로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까지 太陽이 머물게 된다. 따라서 陰이 된다고 한 것이다. 즉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의 문장은 정확한 천체관측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類經圖翼·奎壁角軫 天地之門戶說≫에서 "陽道"와 "陰道"를 설명한 것과 같은 관측방법이다.

그림41. <衛氣行 第七十六>를 圖解함.
心에서 昴까지 14宿는 陰이 되고, 畢에서 房까지 14宿는 陽이

---

224) 水下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三刻, 人氣在陽明; 水下四刻, 人氣在陰分. 水下五刻, 人氣在太陽; 水下六刻, 人氣在少陽; 水下七刻, 人氣在陽明; 水下八刻, 人氣在陰分. 水下九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一刻, 人氣在陽明; 水下十二刻, 人氣在陰分. 水下十三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四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五刻, 人氣在陽明; 水下十六刻, 人氣在陰分. 水下十七刻, 人氣在太陽; 水下十八刻, 人氣在少陽; 水下十九刻, 人氣在陽明; 水下二十刻, 人氣在陰分. 水下二十一刻, 人氣在太陽; 水下二十二刻, 人氣在少陽; 水下二十三刻, 人氣在陽明; 水下二十四刻, 人氣在陰分. 水下二十五刻, 人氣在太陽, 此半日之度也. - 上揭書 : p.559.

225) 黃帝問於岐伯曰 願聞衛氣之行, 出入之合, 何如? 伯高曰 歲有十二月, 日有十二辰,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 是故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 陽主晝, 陰主夜.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靈樞), 成輔社, 1980, p.551.

226) 天象定者爲經 動者爲緯 子午當南北二極 居其所而不移 故爲經 卯酉常東升西降 列宿周旋無已 故爲緯 … (中略) … 房在卯中 昂在酉中 故謂緯 虛在子中 張在午中 故爲經. - 張介賓 : 類經上, 대성문화사, 1989, p.197.

227) 上揭書 : p.197.

된다. 內部의 굵은 선은 BC 2311年의 二分二至點을 나타내고, 外部의 점선은 1100年代의 二分二至點을 나타낸다.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時代를 살펴보았다. 우선 房宿가 秋分點이 되는 時期는 약 BC 2670年에서 BC 2517年사이가 되며, 昴宿가 春分點이 되는 時期는 약 BC 2400年에서 BC 2300年사이가 된다. 또 張宿가 夏至點이 되는 時期는 약 BC 4000年에서 BC 2600年사이가 되며, 虛宿가 冬至點이 되는 時期는 약 BC 1900年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기는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二至二分의 4点이 정확히 宿에 놓여있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宿를 기준으로 위치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駱賓基의 金文硏究結果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다.

> 禹임금의 경우 당시 歲序의 으뜸자리 별은 春分에 뜨는 별인 昴宿로 정했다고 하는데 昴宿는 舜임금의 별이므로 이를 옆으로 밀어나고 禹임금의 이름인 畢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즉 舜임금 시대(BC 2320年에서 帝位 9年)에는 1年 중 春分點을 가장 중요시 했고, 昴宿가 春分點이 되는 시기는 약 BC 2400年에서 BC 2300年 사이인데, 이것이 金文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房昴爲緯 虛張爲經”과 “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에서 기준점은 昴宿가 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은 적어도 약 BC 2400年에서 BC 2300年 사이의 천문학적 사실을 근거로 기술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2. 〈衛氣行 第七十六〉에서 引用된 BC 2300年 경의 春分點과 秋分點의 位置를 그림으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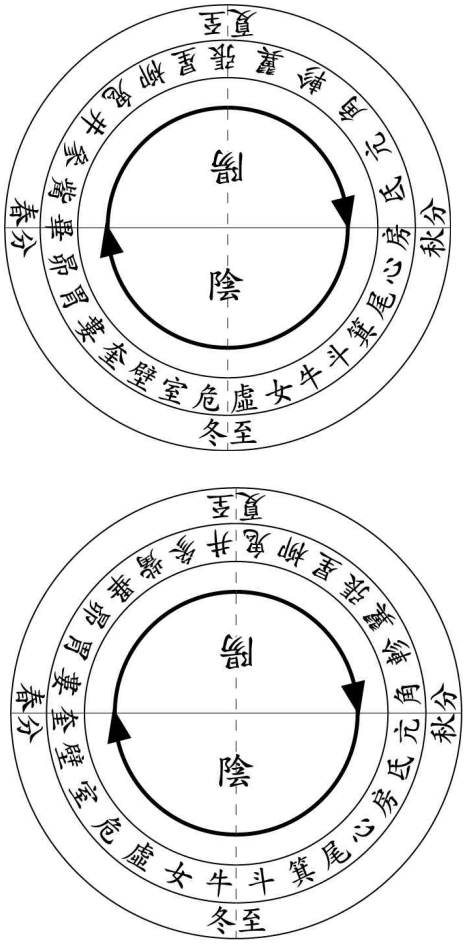


그림43. BC 100年 경 ≪史記≫에 四神圖가 敍述될 당시 春分點과 秋分點의 位置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44. 〈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 引用된 550年에서 720年 사이의 春分點과 秋分點의 位置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45. 2007年 現在 春分點과 秋分點의 位置를 그림으로 나타냄. 가운데 화살표는 太陽이 매달 움직이는 방향이다.

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을 著述할 당시 著者가 BC 2300年代의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를 비유하자면 현시대에 2000年 전의 ≪黃帝內經≫을 참고하여 의학서적을 간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현 시대에 맞추어 28宿의 陰陽과 天門地戶를 論한다면 "翼室爲緯 箕參爲經"이라고 해야 하며, "壁至翼爲陽 軫至室爲陰"이라고 해야 하며, "壁室翼 天地之門戶"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甲骨文字부터 조금씩 형성된 四神과 28宿 構造의 關係가 朝鮮時代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이다. 이는 수백 年간의 세월동안 일어난 春分點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만약 現代에 四神과 28宿의 관계를 다시 설정한다면 春分點의 移動 때문에 내용상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⑶ 箕門穴과 箕宿

天文은 經穴의 명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經穴의 명칭을 정하는데 古人들은 三才思想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였다. 우선 天文과 관련되는 穴名을 보면, 天·風·雲·星 등을 포함하는 經穴인데, 風府, 上星, 紫宮, 華蓋, 璇璣, 天突, 雲門, 天府, 天鼎, 天宗, 天樞, 箕門, 天溪, 天容, 天窗, 通天, 天柱, 風門, 天池, 天泉, 天井, 天髎, 天牖, 翳風, 天沖, 風池, 風市 등이 있다. 그 중에서 箕門과 風市, 天樞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頭部나 上肢에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少商, 商陽[228], 豐隆[229] 등이 있는데 모두 계절과 날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중에서 箕門은 28宿의 箕宿에서 유래한 穴로 東方七宿의 마지막 宿가 되고 四神圖에서는 靑龍의 꼬리에 해당한다. ≪書經·周書·洪範≫에서는 '箕'를 '好風', '畢'을 '好雨'라 하였는데, 箕宿가 나타나는 6월경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畢宿가 나타나는 초가을 10월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자연현상을 상징하는 이름이다[230]. 箕宿가 바람을 주관한다는 것은 ≪天文類秒≫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다.

> 箕는 後宮을 주관하니 妃와 后의 자리를 뜻한다. 天雞라고도 부르는데, 八風을 주관하여 日月星辰이 머무는 곳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맡는다. 또한 口舌을 주관하고, 古朝鮮을 주관한다. 古朝鮮[231]이 침공하려고 하면 먼저 조짐을 보인다[232].

또한 分野說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箕宿의 分野인데, 미국인 선교사 천문학자인 W. G. 루훠스는 "箕子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 별자리가 있었다. 이 별자리는 28宿 중 7번째 宿인 箕이고 스스로를 '箕'의 아들 '箕子'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233]. 이러한 글을 보면 箕子가 朝鮮에 도착한 것은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時期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즉 箕宿가 가장 잘 관측되는 시기는 芒種(6월6일경)이다. 이때 箕宿는 저녁 11시쯤에 떠올라, 자정 무렵에 동남쪽 하늘에 나직이 떴다가, 새벽 3시경 정남쪽 하늘가에 걸려있게 된다[234].

또 箕宿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芒種때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우선 芒種에는 모내기를 하며 여름 철새인 왜가리가 날아오르는 때이다. 또 芒種의 대표적인 연중행사는 보리타작하기, 農牛 보살피기, 논 갈기, 모찌기, 모 삶기, 등[235]이다. 여기서 箕란 '키'를 말하는 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을 한다. 또 왜가리는 철새로 물이 따뜻하고 벌레와 물고기가 많으면 나타난

228) 여기서 '商'은 가을이라는 뜻이며 肺, 大腸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 高式國 : 鍼灸穴名解, 啟業書局, p.35.
229) 豊隆은 雷神으로 천둥을 말한다. - 上揭書 : p.56.
230)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p.238.
231) 중국에서는 고조선이 침공하려 할 때면 먼저 箕宿에 어떤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上揭書 : p.174.
232) 李純之 : 天文類秒, 驪江出版社, 1986, p.17.
233) 나일성 :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10.
234) 안상현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p.174.
235) 김기탁 : ≪農家月令歌≫에 對한 考察, 한민족어문학, 1975, p.20.

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芒種에는 보리타작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물이 따뜻해지고 많아지면서 논농사를 시작하는 때가 된다.

≪天文類秒≫에서는 보리타작과 논농사일을 각각 箕宿와 斗宿로 나누어 구별하였다[236]. 箕宿에는 外杵와 糠을 포함시켰는데, 이때가 보리를 타작(外杵) 하여 키질(箕)을 하고 겨(糠)와 알곡을 만드는 時期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237]. 또 箕宿는 바람을 내어 쭉정이를 날려 보내는 '키'이므로, 바람을 다스리는 風伯으로도 생각했다.

이러한 箕宿는 穴位의 명칭에도 사용되었는데 바로 足太陰脾經의 箕門穴이다. 箕門穴은 血海 上 6寸에 위치하는 穴인데, 經穴을 처음 집대성한 皇甫謐의 ≪鍼灸甲乙經≫(259年)에서 처음 나온다. ≪鍼灸穴名解≫에 의하면 '키'의 모양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을 때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주로 小便不利, 淋濁遺尿, 小便不通, 鼠蹊部腫痛 등을 다스린다고 하였다[238]. 또 ≪鍼灸大成≫에도 "主淋小便不通 遺溺, 鼠蹊腫痛[239]"이라고 나와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箕門穴은 三部九候脈을 잡는 部位의 하나로 足太陰의 動脈인 下部人[240]에 속하며 脾胃를 살피는 곳[241]이 된다. 즉 農事와 관련된 것은 土에 속하므로 脾에 배속하였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人體의 下部에 위치하면서 脾胃의 상태를 관찰하는 下部人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足太陰脾經의 所生病에 "水閉"라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小便不通, 遺溺"에 대한 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足太陰脾經의 所生病으로 小便不通, 遺溺이 생긴 것을 치료하고 脾胃의 기능을 살피는 穴이라고 생각된다. ≪經穴學叢書≫에서는 箕門穴의 別名을 '太陰의 內市'라고 하면서, 이를 足太陰脾經의 邪氣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242]. 또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足太陰脾經에 쌓여있는 갖가지 異物質이나 雜物을 갈라서 제거해 준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러 이름 중에서 箕를 택한 것이 과연 사람다리의 모양 때문인지, 箕가 나타나는 芒種때와 관련이 있어서인지, 箕가 주관하는 바람의 작용과 脾臟이나 小便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36) 李純之 : 天文類秒, 驪江出版社, 1986, pp.17-21.
237) 上揭書 : pp.17-19.
238) 高式國 : 鍼灸穴名解, 啟業書局, p.62.
239) 楊繼洲 : 鍼灸大成, 大成文化社, 1990, p.280.
240) 天部(天:太陽, 地:巨髎, 人:耳門), 中部(天:太淵, 地:合谷, 人:神門), 下部(天:五里,太衝, 地:太溪, 人:箕門,沖陽). - 王琦 :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79, p.116.
241) 下部天, 足厥陰也; 下部地, 足少陰也; 下部人, 足太陰也. 故下部之天以候肝, 地以候腎, 人以候脾胃之氣. - 上揭書 : p.111.
242) 안영기 : 經穴學叢書, 成輔社, 1995, p.238.

4) 其他 醫家들과의 비교

(1) 李梴과 求故齋道恕의 經脈學說

≪黃帝內經≫에 나타난 28宿는 ≪類經≫에 이르러 學問的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類經≫이 著作된 시기에는 28宿가 일반적으로 醫學에 널리 사용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좀 더 앞선 시기인 李梴이 1575年에 著述한 ≪醫學入門·天地人物氣候相應圖≫[243]에서는 28宿와 24節氣와 12經脈 등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하여 표시하였으나 同書의 〈運氣總論〉[244]에는 五天을 論하면서도 28宿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1601年 楊繼洲가 著述한 ≪鍼灸大成≫에서는 〈衛氣行論〉에서 ≪靈樞≫의 原文을 인용[245]하였으며, 〈頭不多灸策〉에서 28宿와 經脈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246]. 또 同時代인 1611年 朝鮮의 許浚이 著述한 ≪東醫寶鑑·運氣篇≫에서도 언급이 없었으며[247], 약 100年 뒤 淸의 政府에서 吳謙 劉裕鐸의 請을 받아 纂修를 命令하여 1742年에 完成한[248] ≪醫宗金鑑·運氣要訣·客運謌≫[249]에서는 五天을 論하면서도 28宿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24節氣만 論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에 24節氣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28宿와 天文의 構造를 인체에 구체적으로 배속시켜 설명한 이론 중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李梴이

243) 李梴 : 醫學入門, 高麗醫學, 1989, p.6.
244) <聖人仰觀五天雲色>條에, "黔天之氣, 經于中央, 臨甲其之位, 立爲土運 ; 素天之氣, 經于西方, 臨乙庚之位, 立爲金運 ; 玄天之氣, 經于北方, 臨丙辛之位, 水運 ; 蒼天之氣, 經于東方丁壬之位, 立爲木運, 丹天之氣, 經于南方, 臨戊癸之位, 立爲火運此五氣之色, 上經二十八宿, 下應十二分位. 所以古人占天望氣則和氣之災疫應在於何方, 了然預知之矣. 凡占當於正月初一日若太過之紀寅初看, 不及之紀寅末看, 平治之紀寅正看. 如蒼氣爲風, 丹爲熱黃爲濕素燥, 黑爲寒其氣之色有兼見者, 又當分其徽甚而推之."라고 하였고 28宿에 대한 언급은 없다. - 上揭書 : p.57.
245) 楊繼洲 : 鍼灸大成, 大成文化社, 1990, pp.27-28.
246) 惟以七宿爲經 二十四曜爲緯. - 上揭書 : p.121.
247) "天地運氣門" "主氣"條에서 天度을 설명하면서 斗綱이 所指하는 12支의 方向에 따라 季節을 論하였으며, 28宿에 대한 內容은 없다. - 許浚 :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一~四, 大成出版社, 1990, p.57.
248) 홍원식 윤창열 편저 :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p.534.
249) 五天蒼丹黔玄素,天氣天干合化臨,甲己化土丙辛水,丁壬化木乙庚金,戊癸化火五客運,起以中運相生輪,陰少乙丁巳辛癸,陽太甲丙戊庚壬. - 吳謙 : 醫宗金鑑(中), 大成文化社, 1994, p.255.

1575年에 著述한 ≪醫學入門·天地人物氣候相應圖≫[250] 이다. 李梴은 이 圖에서 10干, 12支, 4時, 6氣, 5臟6腑, 12經絡, 28宿, 24節氣 등을 서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림45를 분석해보면 우선 4時에 6氣를 배속하고 天干地支와 文王八卦를 놓고 다음에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으로 끝나는 營氣의 흐름에 따라 12經絡을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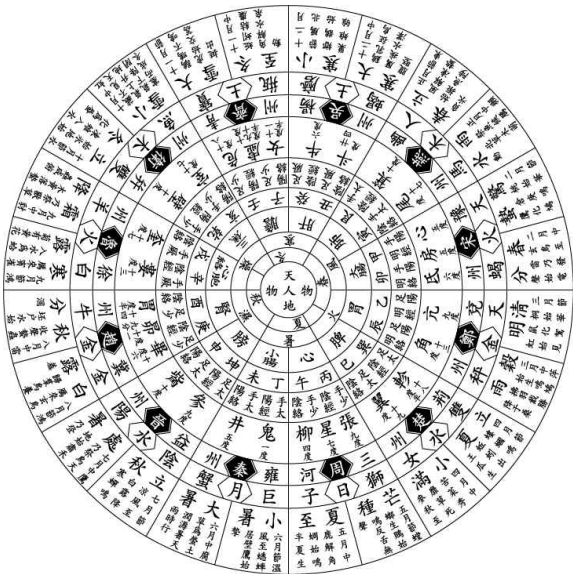


그림46. ≪醫學入門・天地人物氣候相應圖≫

그 다음 여기에 春夏秋冬의 季節에 해당하는 28宿를 반대방향으로 배속하였다. 즉 春에는 東方七宿를, 夏에는 南方七宿를, 秋에는 西方七宿를, 冬에는 北方七宿를 배속하였다. 여기에 다시 12分野와 24節氣를 배속하였다. 이를 요약해서 表로 나타내면 표9와 같다.

여기서 나타난 오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六氣와 12經脈의 三陰·三陽의 배속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251]. 또한 28宿의 실제 흐름이 4時, 24節氣, 經絡, 干支, 6氣의 순서와는 반대로 설정되어있는데, 이는 干支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醫學入門·天地人物氣候相應圖≫에서 李梴이 가장 중심으로 잡은 것을 經絡과 五臟六腑라고 보았을 때, 李梴은 오로지 12經脈의 '營氣'를 기준으로 4時, 6氣, 24節氣 등을 배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李梴의 學說은 營氣만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衛氣와 기타 經脈學說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經脈과 天體와의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求故齋道恕가 1727年에 著述한 ≪二十八宿星運輔指南鈔 上·下≫[25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求故齋道恕는 우선 營氣, 衛氣의 흐름은 列宿을 기본으로 하여 漏水를 법으로 한다[253]고 하였는데 이는 日月星辰의 運行이 모두 28宿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時間과 曆數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營衛가 몸속에 숨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쇠붙이가 자석을 따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日月의 運行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다[254]. 그는 지평선 위를 表로 보고 지평선 아래를 裏로 보았으며 사람도 이에 따라 經脈에 表裏가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表를 陽으로, 裏를 陰으로 보아 經脈에 陰經과 陽經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 衛氣가 움직이는데, 낮에는 衛氣가 陽經으로 흐르고 밤에는 衛氣가 陰經으로 흐른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이유로 모든 병이 밤이 되면 심해진다고 설명하였다[255].

脈을 설명하는데도 天文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즉 해의 위치에 따라 脈의 위치도 바뀐다고 하였

四時	六氣	五臟六腑	經絡	干支	28宿	24節氣
春	風	肺	手太陰經絡	艮,寅	尾,箕	立春,雨水
		大腸	手陽明經絡	甲,卯	氐,房,心	驚蟄,春分
	火	胃	足陽明經絡	乙,辰	角,亢	淸明,穀雨
夏		脾	足太陰經絡	巽,巳	翼,軫	立夏,小滿
	暑	心	手少陰經絡	丙,午	柳,星,張	亡種,夏至
		小腸	手太陽經絡	丁,未	井,鬼	小暑,大暑
秋	濕	膀胱	足太陽經絡	坤,申	觜,參	立秋,處暑
		腎	足少陰經絡	庚,酉	胃,昴,畢	白露,秋分
	燥	三焦	手少陽經絡	辛,戌	奎,婁	寒露,霜降
冬		心包	手厥陰經絡	乾,亥	室,壁	立秋,小雪
	寒	膽	足少陽經絡	壬,子	女,虛,危	大雪,冬至
		肝	足厥陰經絡	癸,丑	斗,牛	小寒,大寒

표9. ≪醫學入門・天地人物氣候相應圖≫를 圖表로 만든 것.

250) 李梴 : 醫學入門, 高麗醫學, 1989, p.6.

251) 風은 厥陰에 해당하고, 火는 少陰에 해당하고, 暑는 少陽에 해당하고, 濕은 太陰에 해당하고 燥는 陽明에 해당하고

다. 해의 위치가 높은 夏至에는 脈도 높게 뛰고 해의 위치가 낮은 冬至에는 脈도 낮게 뛴다고 하였다. 이러한 脈의 浮沈으로 사람은 삶을 영위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의 높낮음에 따라 계절이 바뀌며 四時가 行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256] 특히 夏至에는 해가 北으로 24度를 넘지 못하고 冬至에는 해가 南으로 24度를 넘지 못하는데, 사람의 氣運도 이와 같아서 위로는 膻中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氣海를 넘지 못한다고 하였다[257]. 이렇듯 해와 衛氣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모든 萬物이 해를 향하면 번성하고 해를 등지면 소멸한다고 강조하며 인체도 이와 같다고 이해하였다[258].

또 달의 운행과 營氣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하늘에서 해가 가는 길을 黃道라 하고 달이 가는 길을 白道라고 하는데, 해가 가는 黃道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달이 가는 白道는 안쪽에 위치하므로 衛氣는 脈外를 흐르고 營氣는 脈中을 흐른다고 하였다. 또한 白道가 黃道의 內外를 번갈아서 흐르기 때문에 營氣도 陰經과 陽經을 차례로 흐른다고 설명하였다[259]. 즉 衛氣와 營氣도 天文의 깊은 通察을 통해 人體에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46과 같다[260].

이러한 내용들은 古人들이 ≪內經≫에서 왜 衛氣와 營氣를 중요시 했는가를 잘 說明하고 있다.

또한 求故齋道恕는 經脈의 구조 또한 天文을 응용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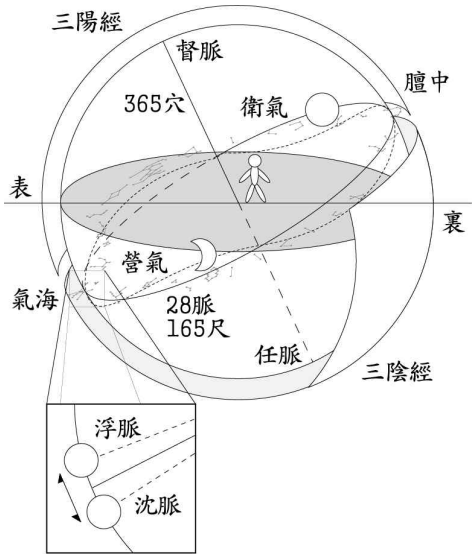


그림47. 求故齋道恕의 天人相應說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위의 그림 중 365穴은 ≪內經≫에 있는 내용이다(註 260참조).

즉 하늘에는 南極과 北極이 있어서 하늘의 軸이 되는데 사람도 督脈과 任脈이 있어서 사람의 主軸이 된다고 하였다. 督脈은 陽脈의 海, 任脈은 陰脈의 海, 衝脈은 督脈과 任脈의 근본이 되고 12經脈의 海가 된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脈이 1가지 根源에서 나왔는데 一身의 主軸이 되고 生命이 繁盛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사람의 몸에는 7衝門이 있고 바깥으로는 9竅가 있는데 세 가지 길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61]. 體質에

寒은 太陽에 해당한다.

252) 이 책의 특징은 天文과 24節氣의 이해를 28宿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특히 各各의 節氣에 해당하는 28宿의 赤道, 黃道 上의 位置를 설명하고, 各各 節氣가 들어오는 날 每時刻에 해당하는 28宿까지 說明하였다. 마지막으로 ≪下≫에는 醫學과 運氣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說明하였는데 天文을 자세히 공부해야 運氣學의 原理를 터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天文과 經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傷寒과 內傷에 대한 理論도 서술하였다. - 求故齋道恕 : 二十八宿星運輔指南鈔 上·下, 1727.

253) 內經ニ營衛脈息ノ運ヲ論スルニ。列宿ヲ本トシ漏水ヲ法トスルヤハ。…(中略)… 列宿漏水ハ日月ノ行ヲ制スルユヘシナリ。- 求故齋道恕 : 二十八宿星運輔指南鈔 下, 1727. p.36.

254) 身中ニ黙運シテ見ヘストイヘトモ。日ノメクリト一機ナルヤ。鐵ノ磁石ニシタカフコトタナルユヘナリ。- 上揭書 : p.36.

255) 人身コレニ應シテ經脈ニ陰陽表裏有リ。陽經ハ地上ニ應シテ表ナリ。陰經ハ地下ニ應シテ裏ナリ。日ハ地平ニ出入シテ晝夜ノ分有リ。人身コレニ應シテ衛氣出入ス。…(中略)… 百病者多以且慧晝安夕加夜甚ト云フヤ。- 上揭書 : p.37.

256) 冬至ノ前後ハ。日ニ赤道ノ外ヲ行テ遠シ。夏至ノ前後ハ赤道ノ內ヲ行テ近シ。ソノ遠近ニ由テ四時行ハル。營衛脈氣。四時ヲ遂テ浮沈スルヤ。- 上揭書 : p.37.

257) 日。赤道ヲ出入シテ南至二十四度北至二十四度ニシテ極マル。…(中略)… 人身上下ノ氣海有テ中焦ソノ中分ニ當ルハ赤道ニ應スルナリ。上ハ膻中。下ハ氣海ヲ不出シテ營衛生々シ。- 上揭書 : p.38.

258) 千草万木枝葉花實。日ニ向フモノハ榮ヘ。日ニ背クモノハ悴ク。- 上揭書 : p.38.

259) 天ニ黃道白道有テ內外ノ異有リ。日ハ黃道ヲ行テ外ニ有リ。月ハ白道ヲ行テ內ニ在リ。人身コレニ應シテ營ハ脈中ニ在リ。衛ハ脈外ニ在リ。月行一周ノ間ニ陽曆有リ。陰曆有リ。交前陰曆ニ在レハ交後陽曆ニ在リ。交前陽曆ニ在レハ交後陰曆ニ在リ。營氣コレニ應シテ陰經陽經互ニ交ヘテメクル。- 上揭書 : p.38.

260) 이 그림에서 天球의 赤道를 중심으로 위의 半球는 三陽經을 아래 半球는 三陰經에 해당한다. 天球의 北極은 三陽經의 중심이 되는 督脈이 되고, 天球의 南極은 三陰經의 중심이 되는 任脈에 해당한다. 天球의 赤道 주위로 28宿와 해와 달과 五星이 運行하며 萬物이 生長收藏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北極과 南極을 합하여 衝脈의 작용으로 보았다. 地平線의 위는 經絡의 表에 해당하고, 地平線의 아래는 經絡의 裏에 해당한다. 해는 衛氣에 해당하고 黃道위를 10일에 1번 정도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순행하는 달은 營氣에 해당한다. 아래 확대된 상자에 표현된 것은 해가 夏至때 가장 고도가 높고 冬至때 가장 고도가 낮은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람도 여름에는 浮脈이 되고 겨울에는 沈脈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61) 天ニ南北極有テ天ノ樞紐タリ。人ニ督任有テ南北ニ象トル。督脈ハ陽脈ノ海。任脈ハ陰脈ノ海。衝脈ソノ本原ニ起テ十二經ノ海ナリ。此三脈ハ一源ニシテ三枝ナリ。一身ノ極紐ニシテ生命繁リ。天人一貫スル處ロナリ。內ニシテ七衝門。

관해서도 天文의 관점으로 이해하였다. 즉 하늘은 天地 萬物에 公平하게 대하지만 땅은 地平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四時氣候物産에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또 하늘은 生命과 같고 땅은 形骸와 같기 때문에, 사람은 五臟六腑四肢九竅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그 氣運과 厚薄强弱의 다름이 다르게 태어난다고 하였다[262]. 이러한 내용은 經脈學說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다시 비교하면 표10과 같다.

天 體	人 體
天球의 北極	督脈 (陽脈의 海)
天球의 南極	任脈 (陰脈의 海)
赤道의 上部	手足三陽經
赤道의 下部	手足三陰經
黃道, 白道와 北極과 南極	衝脈 (12經의 海)
地平의 上部	經絡의 表
地平의 下部	經絡의 裏
해가 밤낮으로 지평선을 出入하는 것	衛氣가 밤낮으로 陰陽經을 번갈아 出入
달이 黃道의 아래 위를 번갈아 움직이며 공전하는 것	營氣가 陰經과 陽經을 번갈아 脈內를 順行하는 것.
달이 黃道의 안쪽에 있는 것.	衛氣는 脈外, 營氣는 脈內를 흐른다.
해가 夏至에 가장 높고 冬至에 가장 낮게 뜨는 것.	1. 人體의 氣가 위로는 膻中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氣海를 넘지 못한다. 2. 脈이 여름에는 浮하고 겨울에는 沈하다.
28宿	28經脈
28宿를 구성하는 165星	162尺이 되는 28經脈의 길이
1年 365日	1. 人體의 穴數 365穴[263] 2. 人體의 絡脈 365會[264]
해가 균일하게 萬物을 기르는 것.	인체는 모두 五臟六腑와 四肢九竅가 있음.
땅의 모습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것.	體質과 稟賦의 厚薄, 强弱이 생김.

표10. 求故齋道恕의 天地經脈相應論을 表로 정리한 것.

外ニシテ九竅ノ緊要ナルモノ。皆三脈ノ道スヂニ係ル。- 上揭書 : p.38.

262) 土地。南北ニ隨テ地平異ナリ。地平異ナルハ日ノ出入晝夜ノ刻異ナリ。コノコヘニ四時氣候物産モ亦異ナリ。盖シ天ハ一般ナレトモ地其ノ中ニ在テ日道ニ對スル處大同小異有レハナリ。人ノ生命ハ天機ニ本ツキ。形骸ハ地躰ニ象トル。五臟六腑四肢九竅全ク備ルハ衆人一同ナリ。受クルトコロノ質。厚薄强弱人ヽヽ異ニシテ氣モ亦隨テ異ナルハ。- 上揭書 : p.39.

263) 凡三百六十五穴, 針之所由行也. - 楊維傑 : 黃帝內經言解(素問), 成輔社, 1980. p.419.

264) 帝曰 子年少智未及邪, 將言以雜合耶? 夫經脈十二, 絡脈三百六十五. - 上揭書 : p.685.

Ⅲ. 결론

28宿가 韓醫學의 理論에 끼친 영향에 대해 ≪內經≫과 ≪類經≫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28宿는 BC 2500年 쯤 金文에 처음 등장하며, BC 5세기경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이는 현재 수많은 28宿가 BC 2400年 전의 赤道上에 나타나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24節氣는 계절과 시간의 變化를 論하는 것으로 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曆法에 채택되었다. 따라서 28宿는 24節氣가 民間에 널리 보편화되기 전, 시간과 계절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文化, 哲學, 權力의 도구가 되었다.

2. 28宿의 方位는 실제 별자리가 관찰되는 계절과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28宿의 方位가 太陽이 머물러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太陽의 실제 움직임 때문에 東方七宿는 봄에, 北方七宿는 여름에, 西方七宿는 가을에, 南方七宿는 겨울에 보인다. 이러한 천문사상은 훗날 陰陽五行思想과 四神의 관념과 결합하여 天界의 수호신과 같은 개념이 생겨났다. 이러한 思想은 ≪天文類秒≫에 이르러서 완비되었다.

3. 12次는 1年과 12月의 陰陽盛衰를 계절로 구분하여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12年 週期로 公轉하는 歲星의 규칙성을 보고 古人들은 歲陰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해의 규칙성과 변화를 예측하여 계절변화와 農事, 疾病에 응용하였다. 이는 훗날 五運六氣學이 태동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歲陰은 훗날 12支로 발전했다.

4. 윷놀이는 天文을 응용한 우리 민족만 즐기는 놀이이자 易占이다. 특히 윷판의 밭은 28宿를 상징하며 윷말의 움직임은 春分, 夏至, 秋分, 冬至의 이치를 담고 있다.

5. 28宿는 經脈學說과 運氣學說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素問·五運行大論篇 第六十七≫에서는 ≪太始天元冊文≫에 언급된 “奎璧角軫 天地之門戶”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春分點과 秋分點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천문학적으로 추적하면 그 시기는 약 550年에서 720年사이가 된다. 또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에 인용된 “房昴爲緯 虛張爲經”과 “房至畢爲陽昴至心爲陰”라는 천문현상은 약 BC 2400年에서 BC 2300年사이의 春分點과 秋分點을 나타낸 글임을 알 수 있었다.

6. ≪類經·經絡類≫에서는 經絡의 구조에 대하여 28개의 經脈과 督脈, 任脈의 28穴을 모두 28宿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經脈의 길이를 165개의 宿星에 비유했다. 또 衛氣와 營氣의 운행시간을 太陽과 宿의 曆數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求故齋道恕는 해의 運行을 衛氣와, 달의 運行을 營氣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28脈은 28宿와 任脈은 天球의 南極과, 督脈은 天球의 北極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으며, 地上은 陽經, 地下는 陰經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經絡의 모든 이론을 天文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7. 箕門穴은 365穴에서 유일하게 28宿를 인용한 명칭이다. 箕宿는 24節氣 중 논에 물이 차오르는 芒種에 해당하므로, 箕門穴은 주로 脾經의 所生病으로 생기는 水閉, 즉 小便不通, 淋瀝 등을 다스리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古人들은 天文學을 통해 人體를 이해하려고 오랜 세월동안 많은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經脈의 운행시간과 人體의 生理, 病理의 현상의 진행을 28宿를 기준으로 매우 정밀하게 계산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古人들은 疾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천문학은 그 시대의 가장 정밀한 과학체계였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의학이 직면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한의학의 이론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다. 28宿와 天文學에 대한 재정립은 이러한 비판에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韓醫學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맹웅재, 박경남,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1.
2.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사학』, 一中社, 2002.
3.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4.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
5. 任應秋, 『運氣學說 五運六氣, 그 이론과 실체』, 東文選, 1992.
6.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7. 이정모, 『달력과 권력』, 부키, 2002.
8. 이민아, 『시간의 지도, 달력』, 까치, 2003.
9.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10. 이태형,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1989.
11. 김대성,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2002.
12.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
13. 안상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별자리』, 현암사, 2000.
14. 김수길 윤상철 공역, 『天文類秒』, 大有學堂, 1998.
15. 顧實,『漢書藝文志講疏』, 商務印書館, 1927.
16.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7. 정성희, 『우리 조상은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책세상, 2003.
18. 張介賓, 『類經』, 大成文化社, 1989.
19. 張介賓,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9.
20. 유소민,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21. 許浚, 『東醫寶鑑』, 大成出版社, 1990.
22. 이현종, 『東洋年表』, 探求堂, 2006.
23. 李梴, 『醫學入門』, 高麗醫學, 1989.
24. 吳謙, 『醫宗金鑑』, 大成文化社, 1994.
25. 김수길 윤상철 공역, 『五行大義』, 大有學堂, 1998.
26. 求故齋道恕, 『二十八宿星運輔指南鈔』 上·下, 1727.
27. 신원봉, 『윷경』, 정신세계사, 2002.
28. 임승국,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1995.
29. 楊維傑, 『黃帝內經言解 (素問)』, 成輔社, 1980.
30. 楊維傑, 『黃帝內經言解 (靈樞』), 成輔社, 1980.
31. 『天文 하늘의 이치·땅의 이상』, 국립민속박물관, 2004.
32. 안영기, 『經穴學叢書』, 成輔社, 1995.
33. 蔡沈, 『書經集註』, 刊寫者未詳, 1866.
34. 胡廣, 『詩傳大全』, 匯東書館, 1918.
35. 林道春, 『禮記』, 刊寫者未詳, 1628.
36.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10卷, 역락, 2003.
37. 장지연, 『萬國事物起源歷史』, 亞細亞文化史, 1978.
38. 杜預, 『春秋左傳』, 刊寫者未詳, 肅宗年間 (1676-1720).
39. 高誘, 『呂氏春秋』, 藝文印書官館, 1974.
40. 范鑫, 『玉函山房輯佚書』六,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0.
41. 李純之, 『天文類秒』, 驪江出版社, 1986.
42. 최용태, 『鍼灸學(上)』, 集文堂, 1998.
43. 高式國, 『鍼灸穴名解』, 啟業書局.
44. 楊繼洲, 『鍼灸大成』, 大成文化社, 1990.
45. 王 琦,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79.
46. 金 堉, 『松都志』, 1648.
47. 『新南山萬歲曆』, 南山堂, 1985.
48. 楊家駱, 『大載禮記解註夏小正經傳集解』, 世界書局, 1974.
49. 司馬遷 撰, 裴駰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史記』, 史學會社, 1902.
50. 黃汝成, 『續修 四庫全書』1144, 上海古籍出版社, 2000.
51. 안호상, 『대종교 한얼글』, 대종교출판사, 1992.
52. 劉安, 『淮南子』, 刊寫者未詳, 1876.
53. 司馬遷, 『史記』, 三元堂, 1834.
54. 주일모,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법인문화사, 2000.
55. 도유호, 『북한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99.
56. 柳洙業, 姜政秀, 「古代天文學에서의 28宿에 대한 文獻的 考察(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57. 李成奎, 「古代中國의 占星學」, journal of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Vol. 6, no. 1, 1984.
58.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59.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震檀學報』, 1982.
60. 양홍진, 박명구, 「天文類抄에 기록된 사신동물천문도 연구」, J. Astron. Space Sci. 20(1), 2003.
61. 김일권, 「고구려벽화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 천문전통 고찰」, 『高句麗硏究』16輯, 2003.
62. 박창범, 「청원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

자리판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2001.
63. 정성희, 「步天歌」,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박사. 책임연구원.
64. 안상현, 박창범, 유경로, 「≪星鏡≫에 실린 별들의 同定」,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6.
65. 안종수, 「≪禮記·月令≫에 나타난 中國人의 自然觀」, 『철학연구』, 1997.
66. 하영삼, 「甲骨文字에 나타난 古代 中國人의 時間觀」, 동의대학교, 1999.
67. 윤창열, 「運氣學說의 기원에 대한 硏究」, 『大韓原 典醫史學會誌』 Vol. 12-1.
68. 김 성, 「고대 이집트 별자리 관측의 기원과 발전」, 『大邱史學』 第74輯, 2004.
69. 김기협, 「≪禮記·月令≫의 昏旦中星記事 硏究」, 『한국과학사학회지』 Vol.2,-No.1, 1980.
70. 안종근, 강정수, 「天文·地理·人事로 살펴본 24節氣에 관한 硏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1호, 2000.
71. 이용범, 「≪靈樞≫의 서지학적 고찰」,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12-2, 1999.
72.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素問·七篇大論≫ 王氷 注本을 通한 運氣學說 關한 硏究」,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4권, 1995.
73. 이양수, 「擲柶(윷)에 관한 연구」, 『文化史學』 11·12·13號, 1999.
74. 이일영, 「윷의 由來와 名稱에 등에 관한 考察」, 『한국학보』(2), 1976.
75. 박갑수, 「사람을 왜 윷으로 보나?」, 『한글+한자문화』, 2003.
76. 김기탁, 「≪農家月令歌≫에 對한 考察」, 『한민족어문학』, 1975.
77.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2000.
78. 천문학 『작은사전』, 가람기획, 2002.
79. 『說文解字義證』, 齊魯書社, 1994.
80. 『虛詞大辭典』, 成輔社, 2001.
81. Starry Night Pro 4.0.4, SPACE.com Canada Inc, 2002.

표·그림

그림1 : 조셉 니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2, 까치, 2000의 p.128-129의 그림을 참조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2-4 : 論文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린 그림. 본인 작성.

그림5-6 : 김일권 :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高句麗硏究 3輯, 1997, p.99에 나온 그림을 다시 그림. 본인 작성.

그림7 : ≪天文類秒≫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8 : 그림 1을 底本으로 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9-23 : 이태형 :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1998 의 서양별자리 그림에 Starry Night Pro 4.0.4와 안상현, 박창범, 유경로 : ≪星鏡≫에 실린 별들의 同定,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6.를 참조하여 28宿의 위치를 표시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24 : 論文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25 : ≪禮記·月令≫의 내용을 참조해서 그림. 본인 작성.

그림26 : ≪天象列次分野地圖≫의 그림을 그대로 그림. 본인 작성.

그림27 : 天文 하늘의 이치·땅의 이상 : 국립민속박물관, 2004. p.221의 그림을 참조하여 28宿의 方位와 일치하게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28 : 이일영 : 윷의 由來와 名稱에 등에 관한 考察, 한국학보(2), 1976. p.133의 그림을 참조하여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29 : ≪類經圖翼≫의 그림을 참조하여 28宿를 시계방향으로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30-37 : Starry Night Pro 4.0.4.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된 그림. 본인 작성.

그림38 : ≪天象列次分野地圖≫를 참조하여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39-40 : ≪類經圖翼≫의 그림을 다시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41 : ≪靈樞·衛氣行 第七十六≫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이해를 돕기 위해 中世의 春分點, 秋分點과 비교함. 본인 작성.

그림42-45 : 論文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림. 본인 작성.

그림46 : ≪醫學入門≫의 그림을 다시 그린 것. 본인 작성.

그림47 : ≪二十八宿星運輔指南鈔≫의 내용을 토대로 그린 것. 본인 작성.

표1 : 김수길, 윤상철 공역 : 天文類抄, 대유학당, 1998. p.444.를 참조하여 다시 수정한 것.

표5 : 上揭書 : p.17의 표에서 歲星의 방향을 빼고 28宿의 방위를 추가한 것.

표2, 3, 4, 6, 7, 8, 9, 10. : 論文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 작성.